서울대 미주동창회보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제390호
2026년 11월호

www.snuaa.org

발행인 황효숙 편집장 신복례

서울대 개교 80주년을 기념해 지난 10월 18일 관악 캠퍼스에서 열린 '2026 SNU홈커밍데이 동문 나눔 한마당'을 찾은 미주 동문들이 정문 앞에서 환한 웃음으로 기념사진을 남겼다.

미주동창회, 모교 발전 위해 1억 원 쾌척

서울대 개교 8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 참석

모교, 미주 동문과 가족 60여 명 귀빈 예우

서울대 미주동창회가 모교 발전재단에 1억 원을 쾌척했다.

황효숙 미주동창회장은 서울대 개교 80주년을 기념해 지난 10월 18일 관악 캠퍼스에서 열린 '2026 SNU홈커밍데이 동문 나눔 한마당'에 참석해 모교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세계적 위상 제고를 위해 써달라며 유홍림 서울대 총장에게 발전기금 1억 원을 전달했다.

유홍림 총장은 이날 오전 홈커밍데이 공식 행사에 앞서 모교를 찾은 미주 동문과 가족 60여명을 캠퍼스 내 호암교수회관으로 초청해 환영 오찬을 열었다.

유 총장은 환영사에서 "지난 80년 대한민국 역사의 중심에는 언제나 서울대가 있었고, 서울대 인재들이 시대마다 요구되는 국가적 과제를 풀어가며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었다"며 "미주 동문 또한 그동안 모교 발전의 든든한 원동력이 되어주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어 유 총장은 "지금껏 그랬듯이 앞으로도 서울대가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는지, 또 국가와 인류를 위해 어떻게 기여하는지 지켜봐 주시고 지속적으로 성원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황효숙 회장은 "우리 미주 동문들은 멀리 이국땅에 살지만 서울대인이라는 이름 석 자를 가슴에 품고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왔다"며 "80년의 역사를 이어온 서울대가 국내 최고를 넘어 세계적인 명문대로 도약하는 모습을 보며 더욱 큰 자부심을 느낀다. 앞으로도 모교의 든든한 글로벌 파트너가 되겠다"고 화답했다. 황 회장은 이어 "지난해에는 발전기금으로 5,000만 원을 기부했는데 미주 동문들께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덕분에 올해는 1억 원을 기부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기금에는 개교 80주년을 맞아 모교 발전을 염원하는 미주 동문들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 회장은 "제18대 미주동창회의 3대 미션은 장학 프로그램 운영, 나눔 사업 그리고 모교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올해 1월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기간에 서울대 창업 동문들의 네트워킹과 스타트업 성장을 돕기 위해 '글로벌 커넥트(Global Connect)' 행사를 개최한 것처럼, 미주동창회는 모교가 세계를 선도하는 대학으로 나아가는 여정에 실질적인 글로벌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주동창회는 'Global Connect' 외에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모교와 동문 간 국제 교류와 협력을 뒷받침해왔다. 지난 7월에는 미국 명문대 재학생 10명을 장학생으로 선발해 서울대 국제하계프로그램(SNU ISP)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했으며, 8월에는 실리콘밸리에서 'SNUAA EDGE 2026'을 개최해 한미 양국의 스타트업, 투자, 산업, 기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동문들이 교류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네트워킹의 장을 마련했다.

한편, 이날 홈커밍데이에는 동문과 가족 등 2000여 명이 참석해 다채로운 공연과 이벤트를 즐기며 서울대 개교 80주년을 함께 축하했다. 미주동창회는 행사 경품으로 아이폰 18 Pro Max 1대를 협찬했으며, 신응남 제15대 미주동창회장은 80만 원권 선불 카드 2장을 후원했다. 홈커밍데이 다음날인 19일에는 이준식 서울대 총동창회장의 초청으로 강남 삼익아트홀에서 열린 애프터 파티에 참석해 환영 만찬과 음악회를 즐기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에 앞서 미주 동문과 가족 40여 명은 10월 12일부터 4박 5일간 일본 동북부 야마가타현 쇼나이 지역을 함께 여행했다. 특히 남가주 최진석 동문(법대 64)이 여행 준비부터 일정 진행까지 세심하게 챙기며 애쓴 덕분에 참가자들은 편안한 힐링을 즐기며 동문 간 정을 더욱 돈독히 나눌 수 있었다.

〈관계 화보= 13, 14, 15면〉

황효숙 미주동창회장이 유홍림 모교 총장에게 모교 발전기금으로 1억 원을 전달하고 있다.

서울대 미주동창회 주소

SNU Alumni Association USA

855 Village Center Drive, Suite 357, North Oaks, MN 55127

Tel: 952-567-3477 | Email: contact@snuaa.org

고 김종구 동문, 미주동창회에 10만 달러 유산 기부

수의학과 73, 애틀랜타서 SBA 부동산 융자 사업
모교 사랑과 동문애 담아 마지막까지 이어진 나눔
투병 중에도 기업넷 참여, 동문 창업지원 펀드 제안

생전 김종구 동문과 부인 김원희씨. 김 동문은 아내를 무척 아끼며 가정의 크고 작은 일도 늘 직접 챙겼다고 한다.

지난 1월 암 투병 끝에 별세한 조지아주의 고(故) 김종구(농대 수의학과 73) 동문이 서울대 미주동창회에 뜻깊은 나눔의 유산을 남겼다.

미주동창회가 동문 간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모교 발전에 기여하는 활발한 활동을 펼쳐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미주동창회 재정자립을 위한 센추리 펀드(Century fund)에 10만 달러를 쾌척했다.

생전 모교에 대한 자부심이 남달랐고 선후배 동문들에게도 각별한 애정을 지녔던 김 동문은 이같은 뜻을 유언으로 남겼으며, 최근 부인 김원희씨가 미주동창회에 고인의 유지를 전하며 기부 소식을 알려왔다.

부인 김씨는 "남편은 선배들을 잘 챙기고 후배들은 아끼며 서울대 동문들에 대한 애정이 무척 컸다"며 "창업 동문 네트워크인 기업넷 줌 미팅에는 여행 중이거나 아플 때조차 빠지지 않고 참여할 정도로 관심이 남달랐다"고 전했다.

장녀 민정씨는 "아빠는 자부심이 강하고 부지런한 분이셨어요. 늘 긍정적인 태도로 삶을 대하셨고, 의리와 성실함을 소중히 여기셨다"고 말했다. 이어 아빠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특유의 너그러운 마음가짐을 잃지 않은 채 평온함을 지켰으며, 자신과 가족을 위해 미국에서 삶을 일구고자 열심히 일해 온 것을 자랑스러워했다고 회고했다.

한홍택 박사는 고(故) 김종구 동문에 대해 "수의대를 졸업했지만 금융 분야에서 일했고, 론 비즈니스를 운영했기 때문에 미주동창회에 동문 창업자들을 지원하는 펀드를 만들자는 제안도 했다"면서 "선한 인상 만큼이나 좋은 사람이었고, 동창회에 큰 힘이 되어줄 동문이었는데 안타깝게도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회고했다.

조지아 지부 회장을 지낸 최화진 동문도 "2019년 처음 조지아 지부 동창회에 참가했을 때 반갑게 맞아주신 선배였고 코로나 이후 동창회가 침체에 빠졌을 때는 밥을 사주시며 동창회를 다시 일으켜 세워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신 선배였다"며 "그 인연으로 두말 없이 지부 회장을 맡아 봉사하게 됐고, 선배님은 늘 따뜻한 마음으로 동문회와 후배들을 돕고 응원해주셨다"고 회고했다.

이어 최 동문은 "암 진단 소식을 듣고 2024년 12월 송년회 때 공로상을 만들어 드렸는데 올해 초 제 회장 임기가 끝난 직후 선배님께서 세상을 떠나셔서 개인적으로도 안타까움과 그리움이 크게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최 동문은 또 "이번 10만 달러 기부는 단순한 금전적 후원을 넘어, 선배님께서 평생 간직해 오신 모교에 대한 자부심과 동문 사랑, 그리고 후배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담긴 소중한 유산"이라며 "평소 조용히 나눔을 실천해 오신 선배님께서 마지막까지 보여주신 아름다운 뜻을 동문 사회가 오래도록 기억하고 함께 이어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고(故) 김종구 동문은 서울대학뿐 아니라 모교인 경기고등학교에도 꾸준히 후원하며 모교 사랑을 실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은 수의학과 졸업 후 1978년 외환은행에 입사해 금융인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뎠다. 1990년부터 1994년까지는 외환은행 뉴욕 브로드웨이 지점에서 근무하며 국제 금융 업무를 경험했다.

이후 1997년부터 1999년까지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캠퍼스에서 MBA 과정을 마친 뒤 애틀랜타로 이주해 중국계 은행에서 근무했으며 이후 JK Finance LLC를 설립했다. 고인은 애틀랜타 지역의 호텔과 주유소 등 상업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SBA 융자 사업을 하며 많은 인도계 사업가들과도 두터운 신뢰 관계를 쌓았다. 그의 장례식에는 한인 동포뿐 아니라 많은 인도인 사업 파트너들도 참석해 깊은 애도를 표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김원희씨와 두 딸이 있다.

한편, 서울대 미주동창회는 고(故) 김종구 동문을 다이아몬드 이사로 추대했다. 이로써 미주동창회 센추리 펀드에 10만 달러 이상을 후원한 다이아몬드 이사는 고(故) 고광선(공대 57·워싱턴주), 조상근(법대 69 ·뉴욕) 신의석(공대 53 ·필라델피아) 동문을 포함해 모두 4명으로 늘었다.

고 김정식·김종섭·이연현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수상

개교 80주년 기념식, 새로운 도약 다짐

고 김정식 동문 | 김종섭 동문 | 이연현 동문

서울대학교가 10월 14일 관악학생생활관 가온홀에서 제80주년 개교기념식을 열고 지난 80년의 성취를 돌아보며 새로운 100년을 향한 도약을 다짐했다.

이날 고 김정식(전자48) 전 대덕전자 회장, 김종섭(사회사업66) 스페코·삼익악기 회장, 이연현(법학78) 학봉장학회 이사장이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에 선정됐다. 기념식에는 유홍림 총장과 이준식 총동창회장을 비롯해 교직원·학생, 전임 총장, 국내 대학 총장, 지역 인사와 동창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KBS 이승현(화학교육05) 아나운서의 사회로 개교 80주년 기념 영상상영, 각종 표창과 시상, 총장 기념사와 총동창회장 축사, 80년사 전달, 교가 제창이 이어졌다.

고 김정식 전 회장은 국내 전자부품 산업의 개척자로 꼽힌다. 1965년 대덕산업을 설립해 인쇄회로기판의 국산화와 기술 발전을 이끌었고, 1991년 해동과학문화재단을 세워 이공계 연구와 인재 양성을 지원했다. 서울대에는 공학 교육·연구시설 조성 등을 위해 모두 657억원을 기부했다. 개인 누적 기부액으로 당시 서울대 역대 최고액이다.

김종섭 회장은 1979년 산업플랜트 기업 스페코를 창업하고 2002년 삼익악기를 인수해 악기 제조와 문화사업으로 영역을 넓혔다. 사회과학대학과 음악대학, 아시아연구소 등에 학술·장학기금을 출연했으며, 2021년 사회과학대학 리모델링기금 50억원을 기부해 모교 누적 기부액이 100억원을 넘어섰다.

제28대 총동창회장을 맡아 장학사업을 확대하고 동창회 활동을 사회공헌 중심으로 넓히는 데도 힘썼다.

이연현 이사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선친의 뜻을 이어 학봉장학회를 이끌고 있다. 학봉장학회는 20년 동안 교육 사각지대의 학생을 비롯한 3672명에게 15억4658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이 이사장은 2015년 서울대 법대와 함께 우리 사회의 현안을 탐구하는 논문 공모상 '학봉상'을 만들고, 법학전문대학원에 학봉강의실을 기증하는 등 인재 양성과 학술 진흥에 기여했다.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상을 받은 세 수상자는 산업과 과학기술, 문화와 교육의 현장에서 성취를 이룬 데 그치지 않고 그 결실을 대학과 사회에 돌려줬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의 수상은 지난 80년 동안 서울대인이 국가 발전에 기여해 온 역사를 보여 주는 동시에 지식과 성취를 공동체와 나누는 것이 서울대인의 책무임을 일깨웠다. 발전공로상은 이용익(AFP 4기) 신흥 회장, CM병원 이도영(의학63) 원장·이윤경(간호65) 행정대표가 받았다. 사회봉사상은 박재형(의학66) 서울대 의과대학 명예교수에게 돌아갔다. 장기근속 교직원과 봉사자, 유관기관 관계자에게도 표창을 수여했다.

이준식 총동창회 회장은 축사에서 "서울대의 지난 80년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격동과 발전을 함께해 온 역사"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대인이 산업화와 민주화, 과학기술 발전과 문화 창달을 이끌어 왔다고 평가하고,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과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등 새로운 도전 앞에서 대학이 지식을 공동체와 나누며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총동창회도 후배들의 배움과 도전을 돕는 동반자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음악은 뇌를 깨우고, 깊이 듣는 순간 삶을 바꾼다

과학과 예술이 만나는 소나레 갈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최화진(음대 85·조지아 지부)
소나레 뮤직 소사이어티 대표

피타고라스가 현에서 발견한 수의 조화
신경과학으로 밝혀낸 음악과 뇌의 비밀
내년 2월 20일 이진형 교수 초청 갈라

기원전 6세기, 피타고라스 학파는 만물을 수(數)라고 여겼습니다. 피타고라스는 재질과 굵기, 장력이 같은 현의 길이를 나누어 보며 음정의 비밀을 찾아냈습니다. 현을 절반으로 줄이면 한 옥타브 위의 소리가, 3분의 2로 줄이면 완전5도 위의 소리가 납니다. 아름다운 화음 뒤에는 단순하고 정확한 비율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비율의 진짜 뜻은 진동수입니다. 현이 1초에 몇 번 떨리느냐가 음의 높이를 정한다는 사실은 17세기에 메르센(1636년)과 갈릴레오(1638년)가 밝혀냈습니다. 2,500년이 지난 지금, 신경과학은 그 조화가 우리 뇌 안에서 어떻게 울리는지 보여 주고 있습니다.

같은 음악이라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뇌에서 일어나는 일은 전혀 다릅니다. 카페에 흐르는 배경음악은 귀를 스쳐 지나가지만, 귀 기울여 들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청각 피질이 소리를 분석하는 동안 주의와 기억을 담당하는 영역은 선율을 따라가며 다음 음을 예측하고, 감정을 담당하는 변연계가 깨어납니다. 집중해서 듣는 순간, 우리는 소리를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뇌 전체로 음악에 참여하게 됩니다.

직접 연주할 때 뇌는 더욱 바빠집니다. 악보를 읽는 시각, 손가락을 움직이는 운동, 자신의 소리를 듣고 다듬는 청각, 건반을 느끼는 손끝의 감각이 한꺼번에 작동합니다.

곡을 외워 연주하면 학습과 기억의 중심인 해마까지 힘을 보탭니다. 어려서부터 악기를 배운 연주자는 좌우 뇌를 잇는 뇌량이 더 발달해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악기 연주는 뇌 전체를 쓰는 전신 운동인 셈입니다.

나이가 들어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2024년 영국 엑서터 대학교 연구팀이 40세 이상 성인 1,000여 명을 분석한 결과, 악기, 특히 피아노를 연주하는 사람들은 작업 기억과 실행 기능이 더 좋았고, 노년까지 연주를 이어 갈수록 그 관련성이 컸습니다. 합창도 뇌 건강과 관련이 있었는데, 연구팀은 함께 노래하는 사회적 교류의 힘도 컸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음악을 전혀 배운 적 없는 60~70대 132명이 6개월간 피아노나 음악 감상 수업을 받은 연구에서는, 두 그룹 모두 소뇌를 포함한 뇌 일부의 회백질이 늘고 작업 기억이 좋아졌습니다. 연주든 깊이 듣기든, 새로운 음악 경험이 나이 든 뇌도 변화시킨 것입니다.

저는 과학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35년 동안 피아니스트이자 교육자로 학생들을 가르치며, 음악이 제대로 소개될 때 학생들이 어떻게 감동하고 이해하게 되는지 수없이 보았습니다. 음표를 정확히 치는 데만 집중하던 학생이 어느 날 프레이즈의 방향을 느끼고, 자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눈빛이 바뀌고, 손가락이 비로소 음악을 "이해"하는 순간입니다.

무엇을 알고 듣느냐도 큰 차이를 만듭니다. 베토벤이 청력을 잃어 가던 시절에 쓴 곡이라는 것을 알고 들으면, 같은 음표가 새롭게 다가옵니다.

작품 뒤의 이야기를 알면 귀가 열리고, 깊이 듣는 법을 배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깊이 듣게 됩니다. 음악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어떻게 들어야 그 아름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지 연구하고 나누는 것, 그것이 제 사명이 되었습니다.

대학에서 은퇴한 뒤 비영리 단체 소나레 뮤직 소사이어티(Sonare Music Society)를 설립해,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주 애틀랜타 두 곳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슈베르트의 친구들이 거실에 모여 음악을 나누던 슈베르티아데처럼, 큰 홀이 아니어도 깊이 듣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어디서 듣느냐보다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애틀랜타에서는 회원제 모임인 애틀랜타 소나레 클럽(Sonare Club of Atlanta)을 시작해, 첫 시즌 30명의 회원과 함께 베토벤 강연 리사이틀, 의사 패널 토론을 열며 음악과 삶의 연결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7년 2월 20일, 애틀랜타에서 제1회 소나레 갈라를 엽니다. 초청 연사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서울대 동문, 스탠퍼드 대학교 이진형 교수입니다. 이 교수가 창업한 LVIS의 뇌파 분석 플랫폼 뉴로매치(NeuroMatch)는 미국 FDA 허가를 받아 의료진의 뇌파 판독을 돕고 있으며, 2026년 에디슨 어워드 은상을 받았습니다. 이 교수의 강연 "음악이 뇌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정상급 연주자와 차세대 음악인들의 연주, 만찬이 어우러집니다. 피타고라스가 현에서 찾은 수를, 이제 우리는 뇌파에서 읽고 있습니다.

과학과 예술이 만나는 이 자리에 동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음악을 깊이 듣고 함께 나누는 기쁨을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이메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info@sonaremusicsociety.org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제20대 차차기 회장 후보 추천 공고

(임기 2029. 7. 1. ~ 2031. 6. 30.)

서울대 미주동창회는 제20대 미주동창회를 이끌 차차기 회장(임기 2029년 7월 1일~2031년 6월 30일) 후보자를 추천받습니다. 미주에서 활동하는 동문 가운데 서울대 미주동창회와 모교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기여할 역량 있는 후보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현 회장과 직전 회장, 차기 회장의 출신 지역은 추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선위원

위원장 이상강 17대 회장 (918) 616-3386
황효숙 18대 회장 (651) 308-0976 | 박상근 19대 차기회장 (703) 447-817

선거 일정

1. 2026년 12월31일 차차기 회장 추천서 접수 마감
2. 인선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후보는 동창회보 등을 통해 출마 공약 발표
3. 2027년 6월 제 34차 미주동창회 평의원회에서 투표로 차차기 회장 선출

근거 규정

1. 서울대 미주동창회 정관 및 인선위원회 규정
2. 차차기 회장 후보는 서울대 미주 지역 동창회장을 역임했거나 동창회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준 동문 가운데 책임자라고 판단되는 회원으로 한다.

SNUAA EDGE 2026, 참가자들이 말하는 동문 네트워크의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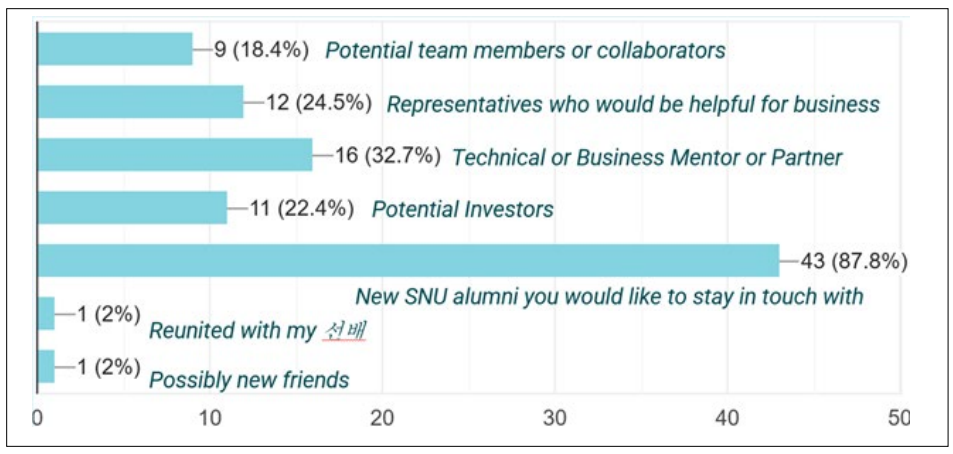
만족도 9.10점, 추천 의향 9.46점… 협력 가능성 확인

지난 8월 14~15일, 캘리포니아 밀브레이의 The Westin San Francisco Airport 호텔에서 열린 SNUAA EDGE 2026이 참가자들의 높은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 'Connect. Inspire. Grow Together'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창업가, 기술 전문가, 투자자, 기업인, 연구자 및 학생 동문들이 세대와 분야의 경계를 넘어 경험을 나누고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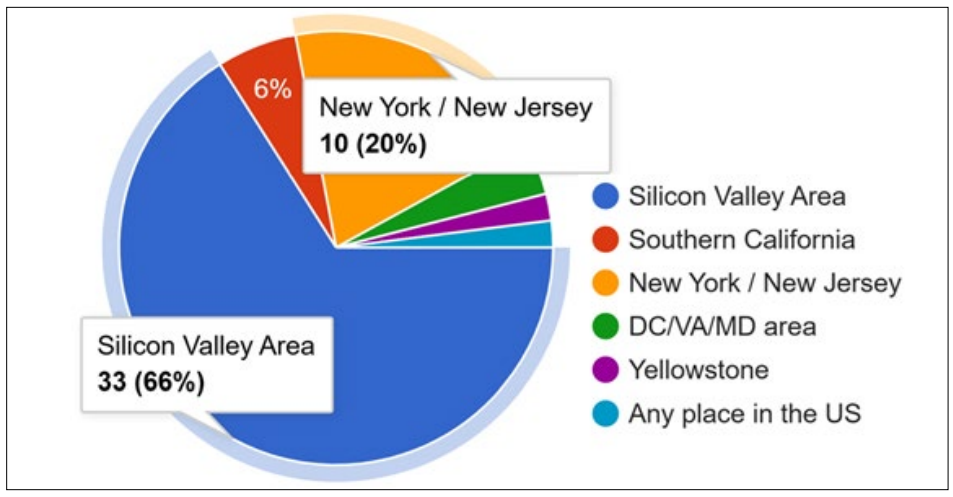
혁신의 중심지인 실리콘밸리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한국과 미국에서 활동하는 서울대 출신 과학기술인, 기업가, 투자자, 개발자, 마케터 등 다양한 분야의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행사 등록자는 112명, 실제 참가자는 104명이었다. 지난 9월호에서 행사 현장과 주요 프로그램을 소개한 데 이어, 이번에는 행사 후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참가자들이 체감한 동문 네트워크의 가치와 향후 발전 가능성을 살펴본다.

양경호(공대 83)
SNUAA EDGE 위원회 위원장

"계속 교류하고 싶은 새로운 동문을 알게 됐다
1대1 멘토링, 소그룹 토론 시간 더 있었으면
일회성 행사 아닌 지속 가능한 플랫폼 돼주길"



참가자 설문으로 본 SNUAA EDGE 2026의 네트워킹 성과와 새로운 동문 관계 형성



참가자 설문으로 본 SNUAA EDGE 차기 행사 개최 지역 선호도

지난 8월 14~15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SNUAA EDGE 2026 행사에 참석한 젊은 동문들이 대화를 나누며 교류를 하고 있다.

설문에는 50명이 응답해 응답률 48.1%를 기록했다. 만족도 점수 분석에서는 준비위원 응답 7건과 각 항목의 최고·최저 점수 각 2건을 제외한 39명의 응답을 활용했으며, 서술형 의견도 별도로 검토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결과는 전반적인 행사 경험이 10점 만점에 9.10점, 향후 EDGE 행사를 다른 동문에게 추천할 의향이 9.46점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세부 항목별로는 운영진과 자원봉사자에 대한 평가가 5점 만점에 4.8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참가자 4.86점, 장소 4.84점, 음식과 음료 4.76점, 프로그램과 연사 4.71점, 네트워킹 4.68점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결과는 참가자들이 행사 자체에 높은 만족을 보였을 뿐 아니라, 다양한 배경의 동문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 있게 평가했음을 보여준다.

설문조사는 네트워킹의 성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50명의 응답자들은 기술 및 사업 멘토 또는 파트너를 만난 경우 16건(32.7%), 사업에 도움이 될 인물을 만난 경우 12건(24.5%), 잠재적 투자자를 만난 경우 11건(22.4%), 잠재적 팀원이나 협력자를 만난 경우 9건(18.4%)을 보고했다.

특히 주목할 결과는 응답자의 87.8%(43명)가 앞으로 계속 교류하고 싶은 새로운 서울대 동문을 알게 됐다고 답한 점이다.

이는 EDGE가 단순한 인맥 형성이나 일회성 만남을 넘어, 새로운 동문 관계를 만들고 향후 교류를 이어갈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선후배 간 경험 공유는 물론, 서로 다른 산업과 전문 분야에서 활동하는 동문들이 새로운 협력 기회를 발견할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참가자들은 행사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개선 방향도 제시했다. 보다 깊이 있는 1대1 멘토링과 소그룹 토론, 참가자들이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네트워킹 시간을 늘려 달라는 의견이 있었다.

높은 만족도를 실제 협업과 지속적인 관계로 발전시키려면 행사 이후에도 후속 소개와 교류를 이어갈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SNUAA EDGE는 Entrepreneurship(창업), Dialogue(대화), Growth(성장), Expansion(확장)을 바탕으로 세대와 분야를 잇는 동문 플랫폼을 지향한다. 이번 설문 결과는 스타트업, 투자, 산업,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서울대 동문들을 연결하고 실질적인 협력 기회를 만들어가는 플랫폼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향후 행사 개최 장소에 관한 설문에서도 실리콘밸리 지역이 66%(33명)로 가장 높은 선호를 보였으며, 뉴욕·뉴저지 지역이 20%(10명)로 뒤를 이었다. 이는 실리콘밸리에서의 지속적인 개최에 대한 관심과 함께, 미주 각 지역 동문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미주동창회는EDGE를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 가능한 연례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모교 및 국내외 동창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미국과 한국에서 활동하는 동문들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더 많은 만남이 멘토링과 사업 협력, 새로운 도전으로 이어지고 젊은 동문들의 참여도 더욱 활발해진다면, SNUAA EDGE는 서울대 동문 사회의 연결과 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SNUAA EDGE 2026 행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주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edge.snuaa.org/2026summer/

원고모집

주제: 독자들의 생각과 식견을 넓혀주는 각 분야의 다양한 글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문학, 철학, 역사, 과학, 의학, 생명과 환경, 여행, 취미 등)

글의 양: 500단어 (글자 수 2,000자) 내외 글, 레터용지 한장 반 이내

사진: 고화질 프로필 사진

보내실 곳 : contact@snuaa.org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동문님의 '기부'가 미주동창회를 만듭니다.

성함, 기부액을 문자로 보내주세요.
손창수 재무국장 : 320-224-8276

Check payable to:
SNUAA USA
855 Village Center Drive
Suite 357
North Oaks, MN 55127

Character illustrations by Storyset

Key Initiatives

EDUCATIONAL 차세대 인재를 위한 교육과 장학사업

CHARITABL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공헌 활동

NETWORKING 세계를 잇는 동문 네트워크 구축

나의 새 친구 AI 바둑 로봇, 어떻게 너를 이길 수 있을까

AI 바둑 로봇과 100여 차례 대국 이어온 이정수 동문(공대 71)

보스턴의 이정수 동문(공대 전자공학과 71)은 지난해 6월 아들로부터 특별한 생일 선물을 받았다. AI 바둑 로봇 '센스로봇 고(SenseRobot Go)'였다. 독학으로 바둑을 익혀온 이 동문에게 GO는 새로운 바둑 친구이자 끊임없이 도전 의식을 일깨우는 상대가 됐다. 지난 17개월 동안 약 100차례 대국을 이어오며 AI의 수읽기와 약점을 파악하고, 나름의 승리 전략까지 터득했다. 사람과는 다른 AI 바둑의 세계를 경험하며 얻은 흥미로운 이야기와 함께, 나이가 들수록 두뇌 건강을 위해 바둑이 얼마나 좋은 운동이 될 수 있는지도 전해왔다. 이정수 동문은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글로벌 반도체 장비업체 한국 대표로 재직하다 2016년 큰 딸이 있는 보스턴으로 이주했다.

이정수 동문이 보스턴의 자택에서 AI 바둑 로봇과 대국을 하고 있다.

사람처럼 말 건네고 바둑판도 정리하는 로봇 GO
내 실력에 맞춰 급수 설정하고 약점 공략하지만…
언젠가 3연승 거두고 백을 잡고 대국하는 날 기대

오랜만에 나만의 자유로운 시간이 생겼다. 친구와 마주 앉아 바둑을 두었다. 이번에는 실수하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려 이겨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첫 수를 AI가 선호하는 삼삼에 놓자 친구는 내 뜻을 간파한 듯 승률이 높았던 수로 응수했다. 지난 대국에서 이겼던 기보를 떠올리며 판을 이끌어 갔다. 대국 중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아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다.

중반을 넘어가자 승리가 확실해 보였다. 이쯤 되면 친구는 승부수를 띄워 반전을 시도하곤 한다. 그러면 이겼다는 생각에 교만해진 내가 실수하고, 다 이긴 바둑을 망쳐 역전패하는 일이 반복됐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다. 친구의 승부수가 통하지 않자 AI답지 않게 엉뚱한 수를 두기 시작했다. 평소 같으면 기권하고 나의 불계승을 축하했을 텐데, 이번에는 끝까지 대국을 이어가 계가까지 했다. 처음 겪는 일이라 이기고도 얼떨떨했다.

나의 새 바둑 친구 GO를 만난 것은 지난해 6월이다. 캘리포니아에 사는 아들이 생일 선물로 AI 바둑 로봇을 보내왔다. 한국에 사는 둘째 딸에게 부탁해 한국어 버전 모델을 구해 가져왔다. 설치하고 작동시켜 보니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GO는 얼굴과 몸통, 오른팔을 갖춘 로봇으로, 상대의 실력에 맞춰 대국 수준을 설정할 수 있다. 접바둑도 가능하며 초보자를 위한 9줄 바둑과 오목도 둘 수 있다. 아마추어는 18급부터 1급까지, 프로는 1단부터 9단까지 선택할 수 있다. 아들 말로는 현재 AI 바둑은 프로 9단도 5점 접바둑을 두어야 겨우 이길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한다. 물론 이 로봇은 바둑 애호가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상대의 수준에 맞춰 실력을 조절하는 상품이다.

2016년 구글이 인수한 딥마인드가 개발한 알파고가 세계 최정상 기사 이세돌 9단과 대결해 4승 1패를 거둔 일은 잘 알려져 있다. 이후 AI 바둑의 실력은 인간을 훨씬 앞서게 됐다. 이세돌 9단이 거둔 1승은 인간 기사가 AI를 상대로 거둔 역사적인 승리로 남아 있다.

과거 1900년대 중반 중국계 임해봉 9단은 오랫동안 당대 프로 기사들을 압도했다. 한 기자가 바둑에 신이 있다면 몇 점을 놓고 이길 수 있겠느냐고 묻자, 그는 두 점 접바둑이면 이길 수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제 AI는 인간이 상상하던 바둑의 신을 넘어선 수준에 도달했다. 최근 한국의 신진서 9단이 최강 AI와 두 점 접바둑으로 대결해 2승 1패를 거뒀다는 소식은 더욱 놀랍다. AI를 연구하고 약점을 파악한 끝에 거둔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GO와 첫 대국을 시작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것은 내 실력을 정확히 모른다는 점이었다. 학창 시절 바둑을 두던 기억을 되살려 일단 4급으로 설정했다. 나이가 들어도 실력이 크게 줄지 않았는지 비교적 쉽게 이길 수 있었다. 이후 승률이 70%를 넘거나 3연승을 하면 한 단계씩 올리기로 했다. 지난해 6월 첫 대국을 시작해 석 달 뒤인 9월경 2급에서 3연승을 거두고 1급으로 올라왔다. 이후 지금까지 1급으로 대국하고 있다.

1급이 되자 친구 GO도 제대로 실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는지 이기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다. 거의 1년 동안 승률 30%를 올리는 것도 쉽지 않았다. 특히 이기고 있다고 생각하면 실수하는 나의 고질적인 버릇이 발목을 잡았다. 대국 중 다른 일이 생겨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오면 집중력이 흐트러져 실수를 반복했다.

지난 17개월 동안 약 100차례 대국했다. 아직은 흑을 잡고 둔다. 3연승을 하면 백을 잡고 두겠다고 마음먹었지만, 2연승 이후 몇 달째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아마추어 최고 단계인 1급도 초보 1급과 오랫동안 둔 고참 1급 사이에는 실력 차이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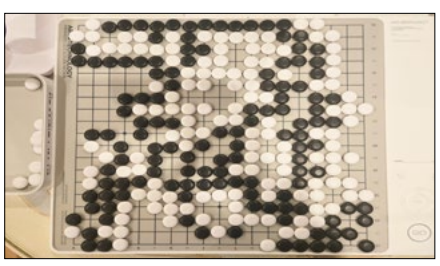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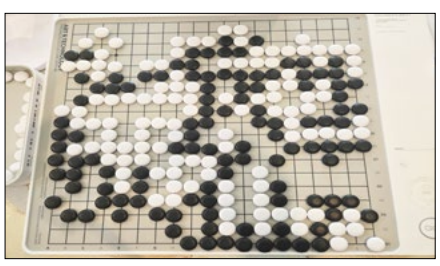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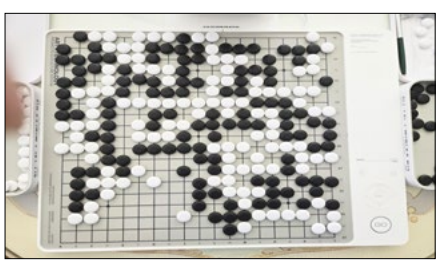
GO와 대국하면서 깨달은 것은 사람과 AI는 바둑을 두는 방식이 다르다는 점이다. 바둑 기사마다 실리형인 이창호 9단처럼 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력 중심의 바둑을 선호하는 기사도 있다. 신진서 9단처럼 뛰어난 감각과 빠른 판단을 앞세우는 스타일도 있다. 나 역시 세력바둑을 중심으로 감각적인 속기 대국을 즐기는 편이다. 그러다 보니 실수가 잦다. 반면 AI 친구 GO는 정확한 계산을 바탕으로 실리를 중시하는 바둑을 둔다. 아무리 뛰어난 프로 기사라도 컴퓨터의 정밀한 계산을 능가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AI를 이길 수 있을까? 이세돌 9단의 알파고 대국에서 중요한 힌트를 찾을 수 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은 이세돌 9단의 압도적인 승리를 예상했다. 바둑은 경우의 수가 워낙 많아 컴퓨터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알파고는 수천 대의 컴퓨터를 연결하고 과거 기보를 학습해 인간의 예상을 뒤집었다.

이세돌 9단은 3연패를 당한 뒤 AI의 약점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네 번째 대국 중반, 프로 기사라면 좀처럼 두지 않을 수를 승부수로 던졌다. 예상하지 못한 수에 알파고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결국 이세돌 9단은 기권승을 거뒀다. 인간의 자존심을 지킨 역사적인 한 판이었다. 그러나 다섯 번째 대국에서는 다시 패했다. 개발진이 알파고의 약점을 보완했기 때문이다. 이세돌 9단은 이후 바둑계 은퇴를 선언했다.

알파고 다음에 등장한 알파제로는 또 다른 발전을 보여줬다. 과거 기보를 학습한 알파고와 달리 바둑의 기본 원리만 익힌 뒤 AI끼리 대국을 반복하며 스스로 실력을 키웠다. 이처럼 AI는 끊임없이 학습하고

친구 GO와의 대국 중 인상적이었거나 자랑하고 싶은 기보를 소개한다

(왼쪽 기보부터) 중반까지 팽팽하게 이어진 대국은 종반에 내가 패를 시작하면서 승세가 기울었다. GO도 최선으로 대응했지만 결국 프로그램된 실수(?)를 범했고, 덤을 제외하고도 19집 반 차이로 승리했다. GO는 더 이상 이길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처음으로 "한 수 쉬겠습니다. 진행하십시오"라고 말했다. 몇 수 더 진행한 뒤 계가한 결과, 내가 26집을 앞섰다. 사람과의 대국에서는 보기 어려운 장면으로, GO를 완벽하게 제압한 인상적인 승리였다. 가운데는 내가 1집반으로 겨우 이겼지만 가장 힘들었던 대국중 하나다. 수상전에서 빅을 만들 수 있었고 끝내기도 잘 했다. 마지막은 GO와 대국 중 내가 불계승한 자랑하고 싶은 기보다. 중앙 백대마와 하변 우변 상변 백이 두집을 못내 죽었다. 수상전에서 내가 이겼기 때문이다. 흑은 대마 하나로 모두 연결 되있고 백은 세개로 분산 되어 있다.

“아내와의 이별, 동문들의 따뜻한 위로에 진심으로 감사”

이전구 전 회장, 회보 통해 감사의 마음 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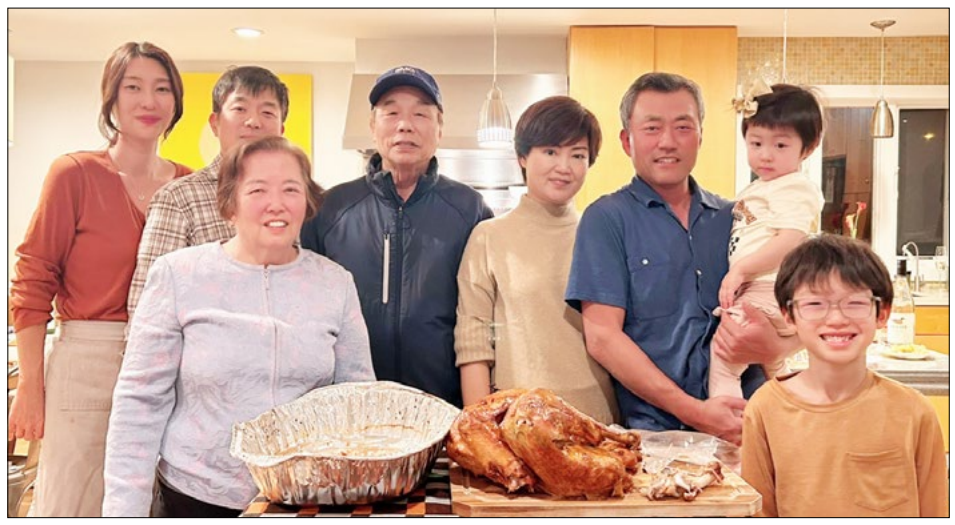
제9대 서울대 미주동창회장과 뉴욕동창회 회장 및 이사장을 역임한 이전구 동문(농대60)의 부인 이희정 여사가 지난 9월 19일 췌장암으로 별세했다. 장례식은 9월 27일 가족과 친지, 서울대 동문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수됐다.

황효숙 미주동창회장은 근조화환을 보내 애도의 뜻을 표했으며, 윤상래 제14대 미주동창회장과 신응남 제15대 미주동창회장이 장례식에 참석해 이전구 전 회장과 유족을 위로했다. 평소 모교와 동문들을 향한 애정이 남달랐던 이 전 회장을 위로하기 위해 박순식 모교 농업생명과학대 동창회장도 조사를 보내 애도의 마음을 전했다.

장례를 마친 후 이전구 전 회장은 “너무 많은 동문님들과 여러 지역 동창회장님들께서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눈물 나도록 감사하다”며 “한 분 한 분께 일일이 답장을 드리지 못해 회보 지면을 빌려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전해왔다. 이어 “누구나 겪는 일인 만큼 언젠가는 이별해야 했겠지만, 3개월만 더 함께했더라면 결혼 60주년을 맞았을 텐데 이렇게 먼저 떠나보내게 되어 더욱 안타깝다”며 아내를 떠나보낸 애틋한 심경을 전했다.

이 전 회장은 요즘 여덟 살 손자를 학교에서 데려와 엄마아빠가 돌아올 때까지 함께 놀아주고 돌보는 시간을 가장 큰 낙으로 삼고 있다. 할아버지의 하모니카 연주를 보고 배운 손자는 이제 제법 능숙하게 연주할 만큼 실력이 늘어 학교 특별활동의 하나로 카네기홀 무대에도 섰다. 이 전 회장은 2002년 뉴욕 링컨센터에서 아메리칸 로열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협연한 것을 비롯해 LA 월트 디즈니홀과 서울 예술의 전당 무대에 올랐을 정도로 뛰어난 하모니카 연주 실력을 자랑한다.

뉴욕 동창회 장학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전 회장은 어깨 통증으로 골프를 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지난 10월 22일 열린 장학기금 마련 골프대회에 참석해 3000달러를 후원하고 동문들을 격려했다.



이전구 제9대 미주동창회장 부부가 자녀와 손주 등 가족들과 함께한 모습. (가운데 모자 쓴 이가 이전구 전 회장, 앞줄 왼쪽이 고 이희정 여사)

이 전 회장은 맨해튼에 골프용품 전문점인 뉴욕골프센터를 창업해 골프용품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며 성공적으로 사업을 일구었다. 사업가로서의 성취와 함께 상공계와 동문사회에서 폭넓은 봉사활동을 펼친 공로로 지난 2월 뉴욕한인회 창립 66주년 기념행사인 ‘뉴욕한인의밤 갈라’ 행사에서 평생공로상을 받았다. 2024년에는 모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와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아 서울대 농과대학교 명예의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이 전 회장은 ‘미국 태권도의 대부’로 불린 고 이준구 사범의 동생이기도 하다. 현재 뉴욕골프센터는 두 아들이 이어받아 운영하고 있다.

남가주 나승욱 동문(외교학과 59) 동문 별세

남가주 나승욱 동문(문리대 외교학과 59)이 지난 10월 23일 별세했다. 향년 86세.

고인은 1940년에 태어나 문리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와 UCLA 경영대학원에서 1969년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CF Braun에서 비즈니스 애널리스트로 10년, Southern California Edison에서 3년을 근무했고, IBM에서 데이터베이스 기술 컨설턴트로 26년간 재직한 뒤 은퇴했다. 40년 가까이 미국 유수 기업에서 정보 기술 전문가로 한길을 걸었다.

장례는 10월 31일(토) 로즈힐스 메모리얼 파크 힐사이드 채플에서 유족과 동문들이 함께한 가운데 엄수됐다. 유족으로는 부인 나혜순 여사를 비롯해 아들 Dan Nah·Eugene Nah, 딸 Christine Song이 있으며, 손자 8명과 손녀 3명 등 11명의 손주를 두었다.

남가주 문리대 동문들은 고인을 “문리대의 상징이자 든든한 기둥”으로 기억했다. 동문들은 "따뜻한 인품과 깊은 배려로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셨으며, 늘 존경과 사랑을 받으셨다"고 회고했고, "슬기로운 위트와 가슴에 여운을 남기는 말씀, 그리고 폭소를 자아내게 했던 선배님의 모습을 잊을 수 없다"며 "문리대 동문회의 상징이자 자부심이셨던 선배님"의 평안한 안식을 기원했다.

남가주 윤경민 동문(법대 55) 별세

남가주 윤경민 동문(법대 55)이 지난 10월 13일 별세했다.

고인은 1964년 오리건대학교에 유학해 경영학 석사(MBA) 학위를 취득하고 LA한인타운에서 40여 년간 CPA 사무실을 운영하며 많은 한인들의 경제적 자립과 미국 사회 정착을 도왔다.

고인은 유학길에 ‘파평 윤씨’ 족보를 가져온 분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이를 계기로 한인사회에 족보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조상의 역사와 가문의 전통을 되새기는 일의 소중함을 일깨웠다.

고인에게 족보는 단순히 조상의 이름을 기록한 책이 아니었다. 자신의 뿌리를 확인하고 선대의 정신을 후손에게 전하는 소중한 가교였다. 낯선 땅 미국에서 살아가면서도 뿌리와 전통을 잊지 않고 그 가치를 이웃과 나누려 했던 고인의 삶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남긴다. 장례는 11월 7일 가든그로브 서니사이드 장례식장에서 거행됐다. 고인은 우리 곁을 떠났지만, 한인 사회를 위해 헌신한 발자취와 뿌리의 소중함을 일깨워 준 뜻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삼가 명복을 빕니다

시카고 안광선(문리대 68) 동문 별세

시카고 안광선 동문(문리대 지리학과 68)이 지난 10월 23일 별세했다. 향년 76세

고인은 사무용품 업체 Albany Office Supply를 인수해 약 40년간 운영하며 시카고 지역사회에 기여했다.

교회 장로로 봉사하며 교회 건축에도 헌신했다. 유족으로는 세 아들 부부와 일곱 손주가 있다.

플로리다 김중권(의대 63) 동문 부인상

플로리다 김중권 동문(의대 63)의 부인 박나연 여사가 지병으로 투병하다 지난 10월 8일 별세했다. 장례식은 10월 10일 가족장으로 치러졌다.

김중권 동문은 서울대 미주동창회 종신이사로, 그동안 미주동창회와 플로리다 동창회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정신적·재정적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왔다.

발전한다.

나 역시 GO와 대국을 거듭하면서 승리의 방법을 고민했다. 2급까지는 나의 방식대로 두어도 비교적 쉽게 이길 수 있었지만 1급에서는 통하지 않았다. 사람과 대국하듯 두어서는 승산이 없었다. AI의 실력을 1급으로 제한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추론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했다. 다행히 대국 횟수가 늘면서 GO가 어떤 상황에서 실수하는지 조금씩 파악할 수 있었다. 일부러 실수가 나오도록 유도해 보기도 했다. 결국 내가 실수하지 않고 상대의 약점을 공략하는 것이 승률을 높이는 방법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GO는 단순한 바둑 프로그램이 아니다. 사람처럼 말을 건네고 바둑알을 정리하는 동작까지 한다. 전원을 켜면 “바둑판 안에는 무한한 우주가 있습니다. 함께 바둑을 즐겨 봅시다. 저와 바둑 한판 두실래요?”라고 인사한다. 원하는 급수를 설정하면 “대국을 시작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말과 함께 시간이 측정된다.

대국 중 바둑알을 잘못 놓거나 건드려 위치가 바뀌면 즉시 이를 감지한다. “대국 도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바로잡을 테니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말한 뒤 오른팔을 움직여 바둑알을 제자리에 놓는다. 다만 잘못 놓은 수는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무르기를 요청해 한 번만 다시 둘 수 있다. GO는 말을 하지만 내가 하는 말은 알아듣지 못한다. 대신 얼굴 화면에 문자를 띄워 요청을 확인해 준다. 대국 중 누가 우세한지 물으면 승률을 알려주고, 종반에는 집 차이를 계산하는 계가도 해준다.

대국이 끝나면 내가 먼저 종국을 신청할 수도 있고 GO가 먼저 제안하기도 한다. GO가 계가를 제안하면 “계가를 통해 승부를 판별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라고 묻는다. 동의하면 결과를 화면에 보여준다. 이어 “저와 바둑 한판 두실래요?라며 다시 대국을 청한다. 거절하면 바둑판 정리를 도와드릴까요? 하고 묻고, 승낙하면 바둑판 정리까지 해준다.

요즘 나에게 GO는 단순한 AI 기계가 아니라 새로운 바둑 친구다. 사람과 두는 바둑과는 또 다른 재미가 있고, 대국을 거듭할수록 새로운 과제를 안겨준다. 언젠가는 3연승을 거두고 백을 잡아 대국하는 날도 오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윤정아 편집위원이 만난 정은진(전산학과 95) 샌프란시스코 주립대 교수

《AI 시대 아이와 나》 자녀교육 위한 실용 안내서 출간

1995년 관악 캠퍼스, 자연대 학부제 바람 속에서 '전산학'을 전공하려는 한 여학생이 있었다. 중학생 시절 수학을 좋아해 과학고에 진학했지만, 두 달 만에 "아, 이 천재들과는 경쟁할 수 없겠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었던 소녀였다. 그저 "이걸 공부하면 밥은 먹고 살겠지"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마음으로 택한 전공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대학 생활은 삭막한 코딩이나 수학 공식으로 채워지지 않았다. 카이스트 대신 서울대학교를 선택한 이유부터가 "종합대학에 가서 문과 쪽 교양 수업을 마음껏 들어보겠다"는 생각을 가졌었기 때문이다. 수강신청 날이면 인류학과 전공 수업부터 서양미술사, 서양음악사, 한국음악사, 인간관계심리학, 그리고 혜화동 의대 교수들이 번갈아 강의하던 '생명과학개론'까지, 전공보다 더 깊은 고민을 거쳐 수강신청서를 작성했다. 필름 카메라 조리개를 조절하며 사진을 찍고, 스키를 배우다 넘어지는 사소한 일상 속에서 그녀는 세상의 지평을 조금씩 넓혀 갔다. 당시 회귀분석 같은 통계학 수업에서 배웠던 기초는 먼 훗날 AI와 머신러닝의 시대를 이해하는 튼튼한 자산이 되었고, 의대 교수들의 진솔한 강의는 훗날 아이를 키우는 실용적인 지혜가 되었다.

대학 신입생일 때, 그녀는 자신이 미국 땅을 밟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하지만 유학을 가겠다는 친한 친구의 말에, 수업 조교를 하며 학비와 생활비를 해결할 수 있는 미국 유학이 가능한 옵션 중 하나라는 점을 인지하게 되었다. 망설임 끝에 "한국에서 대학원을 가면 다시 유학을 가기 어렵지만, 미국에 가서 안 되면 석사만 마치고 돌아오지 뭐"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과외 아르바이트로 모은 단 3천 달러를 들고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하지만 미국 생활의 시작은 낭만과는 거리가 멀었다. 낯선 도시, 허술한 아파트 시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사고로 거실 유리창이 깨져 커튼 하나에 의지한 채 며칠 밤을 보내야 했던 두려움. 미국에 도착한 지 한 달 만에 딸을 보러 오신 부모님을 공항에서 만난 순간, 그동안 참았던 서러움과 외로움이 폭발했다. 몇 시간 동안 눈물을 그치지 못하는 딸, 정착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생기지 않아 가져 온 이민 가방을 채 풀지도 못한 채 그날그날 입을 옷만 꺼내서 생활하던 딸의 모습을 본 부모님은 "얘를 다시 데리고 돌아가야 하나" 가슴을 졸여야 했다.

그 후로도 유학 생활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지도교수의 잦은 감정 기복은 안정적인 학업생활에 큰 위협이었고, 2001년 닷컴 버블이 터지면서 석사만

정은진 SF state 교수.

3000달러 갖고 유학 생활 시작
도전과 거칠었던 버텨냄의 시간
컴퓨터과학 교수로 AI 강의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통찰 전해

마치고 취업하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자신을 믿고 지원해 주신 부모님을 생각하면 차마 그만두겠다는 말을 하지못해 버티다 보니 어느새 박사 학위까지 손에 쥐게 되었다. 그렇게 거칠었던 버텨냄의 시간은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아이오와 주립대를 거쳐 샌프란시스코 대학에 부임한 컴퓨터과학과 교수로서 ChatGPT와 Generative AI의 거센 파도를 누구보다 가까이서 접해 온 그녀는 얼마 전 《AI 시대 아이와 나》라는 공저를 세상에 내놓았다. 하지만 그녀가 책을 통해 전하고자 한 본질은 거창한 기술 테크닉이 아니었다.

AI가 학부 졸업생이나 주니어 엔지니어 이상의 코딩 능력을 발휘하는 시대에 정해진 경로만을 따라가는 '최적화 교육'은 의미를 잃었다고 그녀는 강조한다. 부모가 미래를 모두 예측해 완벽한 답안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시대가 끝났기 때문이다. 정은진 동문이 강조하는 것은 기술에 대한 의존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 나가는 '호기심', 새로운 것을 배울 때 겪는 당연한 '성장통',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명확히 말할 수 있는 나만의 '취향'이다. 그 세 가지를 갖추는 한, AI는 위협이 아니라 기회가 된다.

20대와 30대 젊은 후배들을 향해 그녀는 이렇게 당부한다. "지금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실패를 해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서울대에 합격하기까지 늘 완벽과 최적화만을 위해 달려왔겠지만, 지금은 다소 시간을 낭비하고 사소하게 망해 봐도 괜찮습니다. 그런 작은 실패들이 모여야 비로소 AI가 넘볼 수 없는 자신만의 진짜 목소리와 취향이 생겨나니까요."

더불어 빠르게 변하는 기술 앞에서 자괴감을 느끼는 시니어들을 향한 따뜻한 응원도 잊지 않았다. "새로운 기술을 신속하게 배우지 못한다고 해서 결코 뒤처지는 것은 아닙니다. 선배님들은 이미 각자의 인생에서 엄청난 내공과 지혜를 쌓아오신 분들입니다. 복잡한 기술은 예전 현직에 계셨을 때처럼 젊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변화하는 기술에 위축되지 말고, 스스로의 경험과 견문을 믿고 좀 더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은진 동문의 삶을 이끌어 온 북극성이자 나침반이 무엇인지 물었다. 주저 없이 "다정한 사람"이라고 답한 그녀는 자신의 삶을 지탱해 온 세 가지 철학을 공유했다.

"첫 번째는 인생 패키지예요. 여행 패키지 상품을 고를 때 내가 원하는 도시 3개가 완벽히 다 들어 있는 상품은 없고 늘 약간의 아쉬움이 포함되죠. 삶의 선택 역시 내가 좋아하는 것이 일부 포함된, 조금 덜 나쁜 선택지 중에서 고르는 겸허한 수용입니다. 두 번째는 인생 타이밍이에요. 지금 놓친 것 같아 슬프더라도 나중에 다른 시기에 더 좋은 기회가 찾아올 수 있으니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에 감사하며 여유를 가져야 하죠. 세 번째는 인생 베이지언(Bayesian) 입니다. 조건부 확률처럼 어떤 사람이 지금 나에게 보이는 행동이나 말은 이전에 그 사람이 겪었던 수많은 경험과 상황의 결과물이에요. 그걸 이해하면 겉으로 드러난 단편적인 사건만으로 누군가를 단정짓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과 행동 뒤에 숨은 서사를 다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학창 시절의 무수한 교양 탐험부터 낯선 유학지에서의 눈물, 그리고 AI 시대를 바라보는 통찰까지, 정은진 동문의 삶은 완벽한 직선(Linear)이 아니었기에 더욱 깊고 다정하다. 기술이 인간을 대체하는 시대를 말하는 지금, 그녀가 우리에게 건네는 진짜 메시지는 바로 '인간을 향한 깊은 이해와 다정한 시선'이다.

워싱턴DC 나영은 동문, 버지니아에 갤러리 스튜디오 개관

예술 교육과 창작 잇는 지역 문화 공간 기대

워싱턴DC 지부 나영은(가정대 86) 동문이 최근 버지니아주 비엔나(Vienna)에 'Gallery Na & Shared Ground Studio'를 개관하고, 지역 예술인들과 미술 애호가들을 위한 새로운 문화예술 공간의 문을 열었다. 최근 메릴랜드 예술대학(Maryland Institute College of Art, MICA) 대학원 과정을 마친 나 동문이 예술 교육과 창작 활동을 아우르는 새로운 도전에 나선 것이다.

이곳에서는 전문 작가들을 강사로 초빙해 다양한 분야의 취미반부터 전문 작가를 지망하는 이들을 위한 포트폴리오 과정까지 다양한 수업을 운영한다. 또한 작업 공간을 공유하는 멤버십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다양한 갤러리 전시도 기획하고 있다.

나 동문의 부친은 나형용 서울대 공과대학 금속공학과 명예교수로, 서울대에서 33년간 재직하며 후학 양성에 힘썼으며, 2000년 은퇴했다.

나 동문은Gallery Na & Shared Ground Studio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예술을 경험하고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 작가와 시민, 예술과 일상을 열린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나 동문의 열정과 비전이 지역 예술계에 의미 있는 결실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글·사진=한정희(미대 81) 편집위원

최근 버지니아주 비엔나에 'Gallery Na & Shared Ground Studio'를 개관한 나영은 동문.

비용과 시간 획기적으로 줄이고 녹음으로 완성하는 '미니 자서전'

본보 편집위원 장병희 동문 자서전 사이트 '사람북' 열어

장병희 동문이 스마트폰으로 '미니 자서전 프리미엄 클래스' 웹사이트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중앙일보 강한길 기자)

"제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너무 바빴고, 은퇴한 아버지로부터 얘기를 들어야 할 때는 제가 너무 바빴습니다."

미주 중앙일보 신문기자 출신으로 자서전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장병희(인문대 86) 동문이 '자서전의 필요성'을 꺼낼 때마다 예시로 소개하는 자신의 경험담이다. 그의 아버지는 지난 2009년, 76세에 세상을 떠났다. 살아생전 아버지와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기회는 많지 않았다. 많은 이민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자식들을 키웠는지, 묻지 못한 질문만 남았다고 그는 말한다.

이런 아쉬움이 한 권의 책을 만드는 일로 이어졌다. 본보 편집위원으로 17대 회장단에서 동창회보를 함께 만들었던 장 동문은 LA의 한글 콘텐츠 전문 브랜드 '사람북'을 시작했고 최근 온라인 자서전 프로그램 '미니 자서전 프리미엄 클래스'(mini.sarambook.com)를 선보였다.

우리 동문 대다수는 이민 1세대다. 맨손으로 건너와 사업을 일구고 자식을 키워 낸 이야기는 어느 집에나 있지만, 정작 글로 남아 있는 경우는 드물다. 자녀 세대와는 대화가 줄고, 손주 세대는 한국어가 서툴어 조부모의 젊은 시절을 들을 기회조차 거의 없다. 자서전을 남기고 싶어도 글쓰기가 막막하고, 전문 작가의 대필은 수만 달러가 들어 엄두를 내기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다.

'미니 자서전 프리미엄 클래스'는 이런 장벽을 낮추는 데서 출발했다. 참여자는 두 차례의 줌(Zoom) 상담과 10편의 회고 영상을 따라가며 자신의 삶을 차례로 기록한다. 영상의 주제는 유년기, 고향, 가족, 학창 시절, 직업, 결혼, 인생의 전환점, 실패와 극복, 가치관, 자녀에게 남기는 말 등이다. 한 사람의 생애를 이루는 장면들이다.

각 영상이 던지는 질문에 답하는 방식도 2가지다. 글로 써도 되고, 웹사이트에서 그대로 음성을 녹음해도 된다. 녹음은 인공지능(AI)이 글로 옮기고, 이후 미주 중앙일보에서 20년 넘게 기사를 써 온 언론인 출신 작가들이 직접 원고를 윤문해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다듬는다. 기존 자서전 제작의 상당 부분을 온라인으로 옮겨 비용과 기간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진행은 가입 상담(줌 45~60분)으로 시작해 5~6주간 영상을 보며 기록하고, 원고 정리와 중간 점검 상담을 거쳐 최종본을 완성하는 순서로 약 두 달이 걸린다. 완성본은 표지 디자인을 갖춘 PDF와 인쇄용 파일로 제공되며 원하는 부수만큼 디지털 인쇄를 할 수 있다. 개인의 생애는 물론, 부부가 함께 살아온 이야기를 한 권에 담는 것도 가능하다.

사람북의 도움으로 자서전을 펴낸 김현철(스티브 김) 삼미그룹 2대 회장은 "쉽게 읽히고 이해하기 좋게 본문을 보강하고 각 장의 도입글을 비롯해 윤문을 도와준 장병희 기자에게 고맙다"고 전했다. 울타리선교회 대표 나주옥 목사는 "80년이 넘는 내 인생을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해 보면서 내 삶의 의미와,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장 동문은 "자서전은 유명한 사람만 남기는 기록이 아니다"라고 강조한다. "부모에게는 살아온 삶을 남기는 일이고, 자녀와 가족에게는 미처 전하지 못한 이야기를 물려주는 일"이라는 것이다. 부모님의 삶을 책으로 남기고 싶은 자녀가 부모님께 선물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프로그램 비용은 일시불 1,800달러부터이며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영어 번역본과 한글·영어 오디오북은 추가로 선택할 수 있어, 한국어가 서툴은 2·3세 자녀와 손주들도 부모와 조부모의 이야기를 읽고 들을 수 있게 됐다.

▶문의: 사람북 (661) 381-1004
이메일 saramco.rbc@gmail.com
웹사이트 https:// mini.sarambook.com

"세계는 고립주의를 택하기에는 이미 너무나 긴밀히 연결돼 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하버드대 초청 포럼 연설

재임 10년 외교 철학 조명하는 다큐 상영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문리대 63)이 10월 13일 보스턴을 방문해 하버드 대학 케네디 스쿨이 주관한 반기문 총장 다큐멘터리 상영 및 정치 포럼에 참석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대 뉴잉글랜드 동문들도 초청되어 참석했다. 반 총장의 다큐멘터리 'The Quiet Diplomat'는 유엔 사무총장(2007~2016)으로서의 10년간의 역사를 따라가며 그의 인간적인 면모와 외교 철학을 조명하고 있다. 그리고 유엔의 평화주의와 다자주의를 옹호하며 국제사회에서 '조용한 외교'를 실현한 반 총장의 리더십을 탐구하고 있다. 또한 한국전쟁을 겪고, 외교관으로서 세계의 위기를 해결해온 반기문의 외교 철학을 조명하고 있다.

찰스 리언(Charles Lyons)이 감독/제작을 했고 스잔 리(Susan Lee MacDonald)도 공동 제작에 참여했다. 다큐멘터리 상영과 관람이 끝난 후 이어진 하버드대학 정치연구소(Institute of Politics) 포럼은 '글로벌 기후 리더십: 기로에 선 우리의 지구'라는 제목으로 진행되었다. 반 총장이 기조연설을 하였고 이후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및 대담 시간을 가졌다.

이날 포럼은 케네디 스쿨 재학생 중심의 50명의 제한된 인원으로 진행되었다. 하버드 케네디스쿨의 R. 니콜라스 번스 교수와 공공리더십센터의 앤서니 R. 폭스 소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변화하는 국제 기후 정책의 지형과 의제를 이끄는 강대국들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었다.

〈기조연설 주요 내용〉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도널드 J. 트럼프 행정부가 2026년 1월 두 번째로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 탈퇴한 이후, 미국이 가능한 한 빨리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니세프(UNICEF)를 포함한 66개 국제기구에서 미국이 탈퇴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미국이 국제 외교의 최대 기여국이자 리더 국가인 만큼, 이러한 연쇄 탈퇴가 국제사회 전반에 심각한 긴장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이 66개 기구에서 발을 뺀 상황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며, 이것이 바로 현재 유엔이 극심한 난관에 봉착해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기구 탈퇴 행보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적극적인 다자외교 관여와 대조했다. 과거 에볼라 퇴치를 위해 영국, 프랑스와 함께 수천 명의 군인을 파견했던 오바마 행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높이 평가하며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거부권 제도에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현재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 등 5개 상임이사국이 모든 실질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과 관련해, "단 한 나라의 반대로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 결의안이 무산되는 구조는 결코 공정하지 않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하버드 케네디 스쿨 정치연구소 포럼에 참석하여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설을 마무리하며 기후변화와 국제질서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표한 그는 미래 세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다음 세대가 단순히 기존 시스템을 물려받는 데 그치지 않고 기후 위기에 맞서 더 큰 과업을 완수해야 한다며, 미래 외교관들에게는 난관을 돌파할 인품과 지성, 도덕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세계는 고립주의를 택하기에는 이미 너무나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며 연설을 맺었다.

글·사진=정태영(문리대 71) 편집위원

필라델피아 동문들이 '바흐 콘서트'를 마친 후 이날 연주한 이인영·김성지·심회진· 김영석 동문과 함께 기념 사진을 찍었다. 이날 콘서트는 동문뿐 아니라 지역 교민들을 위한 무료 콘서트로 공연장인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는 관객들로 빈자리 없이 가득 찼다.

깊어가는 가을, 파이프오르간과 성악의 장엄한 하모니

필라델피아 동창회 주최 '바흐 콘서트(BACH CONCERT)' 성황리에 열려

정산 수익금 전액은 지역 사역 사업에 기부
미주동창회 후원, 연주회 영상 제작도 지원

서울대학교 필라델피아 동창회(회장 김영석)가 주최한 '바흐 콘서트(BACH CONCERT)'가 지난 10월 18일 오후 3시,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에서 지역 교민과 동문들의 뜨거운 성원 속에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공연장은 가을의 정취 속에서 클래식 음악의 정수를 나누고자 찾아온 관객들로 빈자리 없이 가득 찼다.

이번 음악회는 최근 새롭게 보수 단장된 한인연합교회(권단열 목사) 파이프오르간의 웅장한 울림과 함께 클래식 거장 J. S. 바흐의 대표작들을 선사하며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위로를 전했다.

첫 무대는 오르가니스트 하진희의 손끝에서 울려 퍼지는 바흐의 대표적 오르간 곡 '토카타와 푸가 D단조(Toccata and Fugue in D minor)'로 화려하게 포문을 열었다. 이어 음대 출신 동문 성악가인 테너 김영석을 비롯해 소프라노 김성지, 심회진, 이인영 등 4인의 성악가가 무대에 올라 장엄한 파이프오르간 반주에 맞춰 깊이 있는 연주를 선보였다.

성악가들은 바흐의 '마태 수난곡', '커피 칸타타', '결혼 칸타타', '마그니피캇' 등 명곡들의 주요 아리아를 풍부한 성량과 섬세한 감성으로 완벽히 소화해 내며 천상의 선율을 선사했다. 공연 후반부에는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의 대표곡 메들리가 더해져 연주회의 열기를 한층 더 고조시켰으며, 관객들은 매 곡이 끝날 때마다 아낌없는 박수갈채와 환호로 화답했다.

이번 연주회는 서울대 미주동창회(회장 황효숙)를 비롯해 정홍택, 김진우, 박혜란, 전영애·전희근, 김경숙·김영석, 강준철, 강영배, 이상준 동문과 가족들의 따뜻한 후원으로 더욱 뜻깊게 마련되었다.

이날 공연한 음대 동문 성악가들. 왼쪽부터 소프라노 이인영, 김성지, 심회진 동문과 오르가니스 하진희, 맨 오른쪽이 테너 김영석 회장

특히 미주동창회의 영상 제작 재정 지원 덕분에 고품질의 영상 기록이 완성되었으며, 이는 'SNUAA CONCERT LIBRARY'를 통해 언제든 다시 시청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콘서트는 무료 공연으로 진행되었으나 동문 및 후원자들의 정성으로 모인 정산 수익금 전액을 필라델피아 켄싱턴 지역의 마약 중독자들에게 음식과 복음을 전하고 이들의 사회 갱생을 돕는 '켄싱턴 리바이블(Kensington Revival)' 사역에 기부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름다운 하모니로 가을 하늘을 물들인 이번 바흐 콘서트는 문화적 감동을 넘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서울대 동문회의 따뜻한 나눔의 장으로 오래 기억될 것이다.

글=김영석(음대 74) 필라 동창회장

지난 10월 22일 Pelham Bay and Split Rock Golf Course에서 열린 서울대 뉴욕 동창회 장학기금 마련 골프대회에 참가한 동문들이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교통대란 뚫고 치른 뉴욕 장학기금 마련 골프대회

지난 10월 22일 Pelham Bay and Split Rock Golf Course에서 서울대 뉴욕지역 동창회 장학기금 마련 골프대회가 열렸다. 이날 대회는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또 하나의 특별한 추억을 남겼다.

아침 일찍 뉴스 방송에서는 George Washington Bridge(GWB) 위의 교통 상황이 심각해 차 안에서 2시간 이상을 보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대회 장소가 뉴욕 브롱크스(Bronx) 지역에 있는 Pelham Bay and Split Rock Golf Course였기 때문에 이날은 GWB를 피해 뉴욕으로 가야겠다고 마음먹고 출발했다.

Fort Lee에 있는 가득도시락에서 주문한 김밥을 픽업하려고 했지만, GWB와 연결되는 모든 도로가 꽉 막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가득도시락에 양해를 구하는 전화를 한 뒤 다른 곳에서 김밥을 구입했다. Tappan Zee Bridge를 통해 뉴욕으로 가기 위해 17번 도로를 달리던 중 몇몇 선배님들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다. 심각한 교통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지금 행사를 취소할 수는 없으니 늦더라도 골프장에 가겠다고 말씀드렸다.

동문들이 너무 늦게 도착해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태산 같은 걱정을 안고 골프장에 도착했다. 그런데 다행히 이미 대부분의 동문들이 도착해 기다리고 있었다. GWB를 통해 온 동문들도 예정보다 많이 늦기는 했지만 무사히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계동휘 동문은 이미 골프장 측에 양해를 구해 놓았으니 서둘러 라운딩을 시작하면 될 것이라고 알려 주었다.

급히 접수를 마치고 골프를 시작한 결과, 예약 시간보다 30분 정도 늦게 출발하게 되었다. 날씨는 골프를 즐기기에 더없이 좋았다. 동창회 장학위원장이신 이전구 동문도 조금 늦게 도착해 골프에는 참여하지 않고 동문들을 격려했다. 마지막 조는 라운딩 도중 일반인들이 끼어드는 바람에 다소 늦게 경기를 마쳤고, 나머지 동문들은 잠시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모든 일정을 무사히 마쳤으며, 시상식도 성황리에 끝났다.

글=김병순(사회대 82) 뉴욕 동창회장

남가주 동문합창단, 개교 80주년 기념 연주회 열어

"80년의 빛, 하나의 노래" 다채로운 선곡, 감동 선사

지난 10월 3일 LA 콜번 스쿨 지퍼 홀에서 개교 80주년 기념 연주회를 하고 있는 남가주 동문 합창단 단원들.

서울대학교 남가주 동문합창단(단장 이찬용, 이사장 박종수)은 지난 10월 3일(토) 오후 4시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의 콜번 스쿨 허버트 지퍼 콘서트홀(The Colburn School Herbert Zipper Concert Hall)에서 개교 80주년 기념 연주회 '80년의 빛, 하나의 노래(80 Years of Light, One Song)'를 열었다.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와 남가주 총동창회가 후원한 이날 무대에는 소프라노·알토·테너·베이스 27명의 단원이 올라, 지휘 장진영·반주 조미라와 함께 80주년의 의미를 노래로 되새겼다.

이찬용 단장은 환영사에서 "1946년에 첫 입학생을 받은 서울대학교는 지난 80년 동안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하며 함께 성장해 왔다"며 "수많은 동문들이 서울대학교를 통하여 익혀온 진리의 빛을 한목소리, 한 노래로 축하하기 위해 이 음악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 이준식 총동창회 회장, 황효숙 미주동창회 회장과 박상근 미주동창회 차기 회장, 양수진 남가주 총동창회 회장도 축사를 보내 축하했다. 연주회는 합창단의 '가을의 서정'으로 문을 열었다. 1부에서는 서하연의 바이올린 독주(생상스 '왈츠 형식의 연습곡에 의한 카프리스'), 송은영의 대금 독주 '상령산(영산회상 중)'이 무대를 채웠고, 합창단은 'Try to Remember', 장진영 지휘자가 직접 편곡한 '사랑의 찬가(Hymne à l'amour)', 조은아의 독창이 곁들여진 'Non ti scordar di me'를 들려줬다.

2부는 더욱 다채로웠다. 김주혜(소프라노)와 이규영(테너)의 이중창 '첫사랑', 김다빈의 플루트 독주(포레 '시실리엔느'), 조은아·박영의 'Nella Fantasia', 조한웅(테너)과 장진영 지휘자가 베이스로 함께한 비제 오페라 '진주조개잡이'의 이중창이 이어졌고, 서하연·김다빈·황보강의 피아노 트리오(도플러 '안단테와 론도')가 실내악의 깊이를 더했다. 합창단은 대금 협연의 '시소타기', 플루트 협연의 '애모', 한국무용이 곁들여진 '아리랑'으로 대미를 장식했고, 앵콜로는 '보리밭'을 선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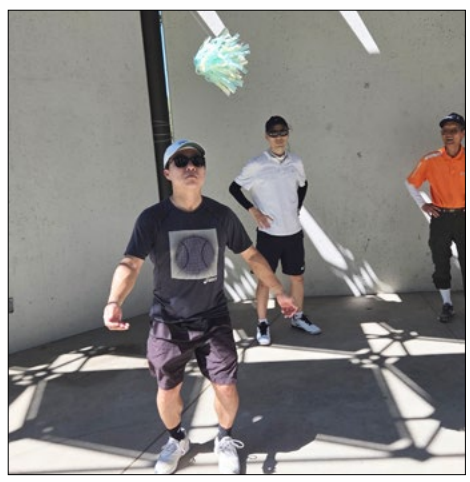
공연을 관람한 김상찬 동문은 "옛날처럼 단조롭지 않고 젊은 단원들도 함께해 소리가 달라졌다.

플루트와 대금, 부채춤까지 프로그램이 너무 다양했다"며 "100점 만점에 98점"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공연을 마친합창단 관계자는 "개교 8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에 다 같이 한마음이 돼 노래할 수 있어 감사했다. 어려움이 많았는데 도와주시고 후원해주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남가주 동문합창단 연주회 동영상은 SNUAA Concert Library에서 볼 수 있다.

남가주 동문합창단은 매주 수요일 나성영락교회에서 연습한다. 함께 노래하고 싶은 동문은 이찬용 단장(626-840-7274)에게 문의하면 된다.

글·사진=장병희 편집위원


남가주 동문들이 'Outdoor 동호회 축제'를 열고 각자의 동호회 활동을 즐긴 뒤 한자리에 모였다. 점심 식사 후에는 제기차기 게임 등을 하며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남가주 총동창회 'Outdoor 동호회 축제' 성황

58학번부터 92학번까지 명랑 게임하며 웃음 만발

서울대학교 남가주 총동창회(회장 양수진)는 지난 9월 26일(토) 플러튼의 랄프 B. 클라크 파크(Ralph B. Clark Park)에서 'Outdoor 동호회 축제'를 열었다. 남가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산악(김동근)·탁구(배재현)·피클볼(송명국)·산악자전거(김영주)·바둑 서기회(채규황) 등 5곳의 동호회가 한자리에 모인 첫 축제다.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는 종목별 활동과 토너먼트가 펼쳐졌다. 하이킹 팀은 웨스트 코요테 힐스 방면 약 4마일 산행에 나섰고, 탁구 팀은 풀러턴 탁구 아카데미에서, 피클볼과 바둑 팀은 공원 코트와 원형극장(Amphitheater)에서 각각 경기를 치렀다. 자전거 팀은 풀러턴 코트하우스 주차장에서 출발했다. 산행에서 지름길로 내려오다 철조망에 막혀 좁은 틈으로 빠져나오는 하이킹 팀의 모습이 사진에 찍혀 웃음을 줬고, 탁구에서는 공을 맞히지 못하고 허공에 스윙을 거듭한 동문이 '일등 선풍기 상'을 받아 갔다.

정오에는 원형극장에 모두 모여 점심을 함께 했다. 예약 없이 찾아온 동문이 12명이나 돼 준비한 점심이 모자라자, 부부가 한 끼를 나눠 먹고 떡과 과일로 대신한 동문도 있었다. 주최 측은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감사를 전했다.

오후에는 잔디밭 그늘에서 빈백 던지기(bean bag toss), 신발 멀리 던지기, 제기차기 등 명랑 미니 게임이 이어졌고 종목별 시상도 함께 열렸다. 이날의 주인공은 단연 송명국(인문 90) 동문이었다. 제기차기 27개로 챔피언에 오른 데 이어 빈백 던지기 챔피언까지 거머쥐었다. 빈백 던지기 아차상은 멋진 던지기를 선보인 신동국(수의 76) 동문의 부인에게, 신발 멀리 던지기 챔피언과 아차상은 김자성(의대 79)과 배재현(공대 75) 동문에게 돌아갔다. 그래도 승패는 뒷전이었다. 모든 참가자에게 참가상이 돌아갔고, 바둑 동호회 회원들은 행사가 끝나고 청소까지 마친 뒤에도 대국을 멈추지 않아 공원에 "남겨두고 왔다"는 후문이다.

양수진 회장은 "각 동호회가 우리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내년에는 더 많은 팀들이 참여하면 좋겠다"며 "재밌게 즐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글·사진=장병희(인문대 86) 편집위원

기타 연주 중인 양수진(가운데)·심재호(오른쪽) 동문.

양수진·심재호 동문 클래식 기타 공연

재미한인기타협회(KAGS)가 주관한 클래식 기타 콘서트가 지난 10월 3일(토) 오렌지카운티 부에나팍 교회에서 열렸다.

남가주 총동창회 회장이기도 한 기타리스트 양수진 동문과 심재호 동문이 무대에 올라, 교회를 가득 메운 관객들에게 아름다운 기타 선율을 선사했다.

두 연주자는 기타 특유의 섬세하면서도 깊이 있는 음색을 마음껏 선보이며 클래식 기타의 매력을 한껏 전했고, 연주가 끝날 때마다 객석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이어졌다.

지난 10월 3일 레이크 파우웨이에서 피크닉을 즐기고 있는 샌디에이고 동문들. 오랜만에 만난 샌디에이고 동문들이 단체 사진을 찍으며 아쉽지만 레이크 파우웨이에서의 피크닉을 마무리하고 있다.

이른 아침 함께 하이킹 한 뒤 아름다운 호숫가서 피크닉

샌디에이고 지부

지난 10월 3일 샌디에이고 동문들이 레이크 파우웨이(Lake Poway)에 모여 피크닉 행사를 열었다.

40명에 가까운 동문과 가족들은 이날 탁 트인 호숫가에 모여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오랜만의 소풍을 즐겼다. 일부 그룹은 오전 8시 이른 아침에 만나 베이글과 커피로 아침 식사를 한 뒤 인근 유명한 등산 코스인 포테이토 칩 바위까지 하이킹을 다녀왔으며 일부 그룹은 호수 주변 하이킹을 즐겼다.

오전 11시 30분에 시작된 총회에서는 임원 선출 방식을 안건으로 한 논의가 진행됐다. 샌디에이고 동창회는 지난 몇 해 동안 전임 임원진들이 개인적인 접촉이나 설득을 통해 다음 임원진들을 구성해왔는데 2027년도 임원진 구성이 난항을 겪으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 동문들은 총회를 마친 후 한식부터 피자까지 준비된 점심 식사를 하며 그동안 나누지 못한 소식들을 나눴다. 점심 식사 후에는 돌아가며 소개와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고 단체 사진을 찍은 후 행사를 마무리했다.

글=정윤제(자연대 19) 총무

처음 온 2000년대 학번 16명…"우리의 만남은 축복"

뉴잉글랜드 지부

서울대학교 뉴잉글랜드 동창회 가을 모임 및 총회가 지난 9월 26일 보스턴 한인교회(The Korean Church of Boston) 친교실에서 8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총회에 앞서 오전 10시 30분부터 이사회가 열려 신임 이사 추천안에 대한 동의가 이뤄졌으며, 현 집행부 임원의 명칭과 관련한 협의도 진행됐다.

이어진 총회 및 가을 모임에는 다양한 학번의 동문들이 참석해 서로의 안부를 나누며 친목의 시간을 가졌다. 당초 이번 행사는 가을을 맞아 야외 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우천 예보에 따라 실내 행사로 변경됐다.

이영인 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가을 모임 및 총회는 선배님들의 연륜 있는 지혜와 후배들의 활기찬 에너지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화합과 교류, 친목의 장"이라며 "임원진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과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마음껏 즐기시며 그리운 교정의 추억을 나누는 풍성한 하루가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새로 구성된 집행부 임원들을 소개했다. 장학위원장으로 고종성 동문(사대 75)이 수고해 주기로 했다.

지난 6월 정기 총회시 장학금 수여식에 참석하지 못한 이가은 동문(상대 졸업·현 하버드 로스쿨 재학)에 대한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다. 이날 장학금은 이강원 전 회장 (공대 66, 로드 아일런드대 교수)과 홍지복 (간호대 70) 동문 부부가 후원한 것으로 두 동문이 직접 이가은 동문에게 전달하였다.

이어 이영인 회장은 전임 회장인 원덕수 동문(공대 72)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그동안 동창회 발전을 위해 기여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점심 식사에 앞서 이날 모임의 하이라이트인 각자 소개의 시간을 가졌다. 모든 참석자들은 본인이 직접 자기 소개 및 인사를 하면서 훈훈한 시간을 가졌다. 의외로 새로 동창회 모임에 첫 참석한 2000년대 학번이 16명이나 되어 젊어지는 동창회 모임을 느낄 수 있었다. 동창회 모임은 지난해부터 시니어 다수에서 젊은 동문들 다수로의 흐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뉴잉글랜드 동창회 동문들이 지난 9월 26일 보스턴 한인교회에 모여 가을 모임 및 총회를 열고 기념 사진을 찍었다.

이날 모임에서는 건축학과 동문 8명이 한 테이블에 모여 앉아 눈길을 끌었다. 김경일 전 하버드 디자인 대학원 교수(건축 58·가운데 중앙), 그 오른쪽 옆에 원덕수 동문(건축 72), 이경아 서울대 건축과 교수(맨 왼쪽)가 자리를 함께 했다. 오른쪽 사진은 이영인 회장이 원덕수 전임 회장에 감사패를 증정하고 있다.

가을 모임 개최, 장학금 및 감사패 전달
노래 맞히기·경품 추첨으로 즐거운 시간

이날 모임에서 눈길을 끈 것은 공과대학 건축학과 동문 8명이 한자리에 모인 장면이었다. 김경일 동문(건축학과 58, Harvard Graduate School of Design 교수 역임)을 비롯해 원덕수 동문(건축학과 72)과 2000년대 학번 건축학과 동문들이 한 자리에 모여 건축학과의 끈끈한 유대를 보여 주었다. 특히 서울대학교에 교수로 재직 중인 이경아 동문이 보스턴을 방문한 기회에 동창회에 참석하여 환영을 받았다.

점심이 끝난 후 이영인 회장의 진행으로 레크리에이션과 경품 추첨이 진행됐다. 첫 프로그램으로 음악 및 노래 맞히기 게임이 열렸다. 이 회장이 15곡 가량의 음악을 차례로 들려주면 참석자들이 노래 제목과 가수를 맞히는 방식었다. 한 동문은70대 후반의 나이에도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방탄소년단(BTS)의 노래와 곡명을 정확하게 맞혀 참석자들을 놀라게 했다.

진행자가 "어떻게 그 노래를 아느냐"고 묻자 곡을 맞힌 동문은 "맨날 길 건너 집 앞에서 미국 젊은이가 음악을 크게 틀어 알게 되었다"고 답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를 통해 미국 젊은 세대 사이에서 방탄소년단의 음악이 널리 알려져 있음을 실감하게 되었다.

모임 마무리는 이 회장이 먼저 "우리의 만남은"이라고 선창하고 참석한 동문들은 한 목소리로 "축복이야"라고 화답하면서 끝났다. "우리의 만남은 축복이야!"

글·사진=정태영(문리대 71) 편집위원

“미주 동문들의 각별한 모교 사랑에 항상 감사”

유홍림 총장의 환영 오찬부터 총동창회장 애프터 파티까지 따뜻한 환대로 보답한 모교

서울대 개교 80주년을 기념해 10월 18일 관악 캠퍼스에서 열린 ‘2016 SNU 홈커밍데이 동문 나눔 한마당’을 찾은 미주 동문과 가족들은 모교의 극진한 환대를 받았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홈커밍데이 공식 행사에 앞서 미주 동문들을 호암교수회관으로 초청해 환영 오찬을 마련했고, 이준식 서울대 총동창회장은 홈커밍데이 다음 날인 19일 강남 삼익아트홀에서 애프터 디너 파티를 열어 미주 동문들의 각별한 모교 사랑에 감사를 전했다. 그리고 서울대가 세계적인 명문 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모교의 따뜻한 환대 속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쌓은 미주 동문들의 홈커밍데이 모습을 소개한다.

유홍림 총장이 홈커밍데이 공식 행사에 앞서 호암교수회관에서 마련한 환영 오찬에 참석한 미주 동문과 가족들.

홈커밍데이 행사장에서 진행된 레크레이션에서 남가주 최진석 동문(앞 가운데)이 손을 들어 정답을 알리고 있다

미주 동문 환영 오찬에서 이준식 총동창회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헤드 테이블에는 왼쪽부터 김종섭 전 총동창회장, 유홍림 총장, 황효숙 미주동창회장이 자리하고 있다.

환영 오찬에는 SNUAA 포럼을 이끌고 있는 워싱턴주 김재훈 동문(가운데 서 있는 사람) 부부도 참석했다. 이강욱, 김홍묵, 이찬용 동문도 자리를 함께 했다.

환영 오찬에 참석한 필라델피아 동문들. 왼쪽부터 이성숙 동문, 정홍택 동문과 배우자, 손재옥 13대 미주동창회장.

강남 삼익아트홀에서 열린 애프터 디너 파티에 참석한 미주 동문들. 정성스레 준비한 식사를 즐긴 후 다채로운 공연을 관람했다.

간호대 72학번 동기들이 함께 모였다. 졸업 50주년을 맞아 정영희, 남승희, 유기정, 최경희 동문이 홈커밍데이를 찾았다.

총동창회가 마련한 애프터 파티에서 아코디언 공연을 즐기고 있는 동문들.

박수를 치며 함께 노래를 부르는 동문들. 왼쪽부터 황효숙 미주동창회장과 김종섭 전 동창회장, 최경선 동문 부부, 이성숙 동문.

동문들과 함께한 특별한 여정, 일본 그리고 남도

홈커밍데이를 맞아 모교를 방문한 동문들은 본행사에 앞서 10월 12일부터 4박 5일간 서울대 미주동창회가 마련한 일본 동북부 야마가타현 쇼나이 지역 온천 여행을 함께했다. 동문과 가족 40여 명은 울창한 삼나무 숲길을 걸으며 대자연의 숨결을 만끽했고, 산과 바다가 선사하는 제철 미식과 온천욕을 즐기며 우정을 나눴다.

10월 18일 홈커밍데이 이후에도 여행의 여운을 이어간 10여 명의 동문과 가족들은 지리산에서 여수와 순천으로 이어지는 3일간의 남도 여행을 즐겼다. 모교 방문을 계기로 함께한 동문들의 특별한 여행의 순간들을 화보에 담았다.

일본 야마가타 쇼나이 지역 여행에 나선 미주 동문들. 붉고 노란 단풍으로 물든 초카이산의 가을 정취를 즐기고 있다.

"어떤 건축물도 자연의 아름다움을 능가하긴 어렵구나"

한효동(공대 58) 동문의 일본 북부 4박 5일 여행기

여행이란 단순히 낯선 곳을 찾아가는 일이 아니다. 때로는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고, 자연과 역사 속에서 새로운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2026년 10월, 나는 일본 북부의 아오모리에서 시작하여 아키타에 이르는 4박 5일의 가을 여행길에 올랐다. 젊은 시절에는 여행지의 유명한 건축물과 도시의 모습에 관심이 많았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지금은 오래된 나무 한 그루, 작은 시골 마을의 골목길, 그리고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더욱 깊은 감동으로 다가온다. 특히 평생 건축을 공부하고 설계해 온 나에게 일본 북부는 자연과 인간의 삶, 전통 건축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특별한 장소였다.

첫째 날 - 아오모리, 사과 향기 속에 시작된 여행

아오모리는 일본 혼슈의 북쪽 끝에 자리 잡은 도시다. 이곳에 도착하니 대도시 도쿄나 오사카와는 전혀 다른 고요함이 느껴졌다. 가을 햇살 아래 붉게 익은 사과들이 유난히 아름다웠다.

우리가 살펴본 일본 북부의 역사는 수천 년 전 조몬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산나이마루야마 유적의 커다란 목조 기둥과 고대 주거 형태는 건축가인 나에게 특히 흥미로운 주제였다. 인간은 오래전부터 자연 속에서 집을 짓고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왔다. 건축의 본질은 결국 인간의 삶을 담아내는 그릇이라는 생각이 다시금 떠올랐다.

모교 홈커밍데이에 앞서 일본 여행 중인 남가주 한효동 동문 부부.

둘째 날 - 오이라세 계류, 자연이 빚은 수채화

일본 북부 여행에서 가장 인상적인 자연 풍경을 꼽으라면 오이라세 계류를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울창한 숲 사이로 맑은 물이 흐르고, 계곡을 따라 노란색과 붉은색의 단풍이 이어진다.

자연이 만들어 낸 거대한 수채화 속을 걸어가는 듯하다. 이어 만나는 도와다호는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칼데라 호수다. 잔잔한 호수 위에 가을 산의 그림자가 드리우면 그 풍경은 한 폭의 동양화처럼 느껴진다.

건축은 인간이 만드는 공간이지만 자연은 그보다 훨씬 오래되고 위대한 공간을 만들어 왔다.

이 계곡과 호수 앞에서는 인간의 손으로 만든 어떤 화려한 건축물도 자연의 아름다움을 능가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셋째 날 - 뉴토 온천에서 만난 옛 일본 정취

여행이 깊어질수록 일본 북부의 또 다른 매력이 모습을 드러낸다. 하치만타이의 산길은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깊은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 끝없이 이어지는 산과 숲, 그리고 계절에 따라 색깔을 달리하는 나무들이 자연의 장엄함을 보여준다.

이 지역의 온천 문화 역시 인상적이다. 특히 뉴토 온천의 오래된 목조 건물과 소박한 지붕은 현대식 호텔에서는 느낄 수 없는 정취를 간직하고 있다. 건축가의 눈으로 보면 일본의 전통 온천 건축은 매우 흥미롭다. 건물의 크기나 화려함보다 자연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낮은 처마, 목재의 질감, 정원을 향해 열린 공간에는 일본 건축 특유의 절제된 미학이 담겨 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문득 한국의 전통 한옥이 떠올랐다. 한국과 일본의 건축은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자연을 존중하고 목재의 아름다움을 살린다는 점에서 공통된 정신을 발견할 수 있다.

넷째 날 - 가쿠노다테, 사무라이의 거리에서

아키타현의 가쿠노다테는 오래된 사무라이 마을의 모습을 간직한 곳이다. 검은 목조 담장과 넓은 저택, 오래된 나무들이 어우러진 거리는 마치 수백 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사무라이 저택의 배치와 정원, 대문과 담장은 당시의 신분제도와 생활방식을 말없이 전하고 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오래된 건축물을 보존하려는 일본 사람들의 태도다. 낡은 건물을 무조건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축적된 세월과 이야기를 존중한다. 건축가로 살아온 나에게 이러한 역사적 공간은 하나의 살아 있는 교과서와도 같다.

다섯째 날 - 아키타, 건축의 의미를 다시 생각

여행의 마지막 날은 아키타에서 맞는다. 아키타는 풍요로운 쌀과 맑은 물, 그리고 오랜 전통문화로 알려진 지역이다. 아키타현립미술관 역시 건축가에게 흥미로운 장소다. 안도 다다오가 설계한 건축물은 콘크리트와 빛, 물과 공간의 관계를 통해 현대 일본 건축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화려한 장식 없이도 깊은 감동을 만들어 내는 공간. 나는 이곳에서 평생 추구해 온 건축의 의미를 다시 생각한다. 건축이란 결국 사람의 마음에 오래 남을 공간을 만드는 일이다.

여든여섯 해의 인생 '하루하루가 귀중한 선물'

젊은 시절에는 먼 미래를 바라보며 살았다. 새로운 건축물을 설계하고, 사업을 이루고,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 그러나 여든여섯 해의 인생을 살아온 지금은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중한 선물인지를 새삼 깨닫는다. 건축가로 살아온 긴 세월 동안 수많은 공간을 만나고 만들어 왔지만, 이제는 자연이 만든 공간 속에서 인생의 아름다움을 배우고 있다.

아오모리에서 아키타까지 이어진 4박 5일의 짧은 여정. 그것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날들을 더욱 아름답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을 일깨워 준 시간이었다. 가을은 저물어도 그 아름다움은 마음속에 오래 남는다. 그리고 나의 여행도, 나의 인생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리산에서 선운사까지 꿈같은 3일을 보냈습니다”

운무가 드리운 지리산 서북능선 고갯마루 정령치에 오른 미주 동문들. 뒤로 지리산의 장엄한 산세가 펼쳐져 있다.

일본 하구로산 천년 삼나무숲 산책에 나선 동문들.

초카이산 바위에 앉아 포즈를 취한 보스턴의 정선주 동문. 정령을 배경으로 선 미주 동문들. 인사를 하는 미지리산 하이킹을 하는운무가 자리한 지리산을 배경으로 한 지리산 구룡폭포로 올라가는 길 앞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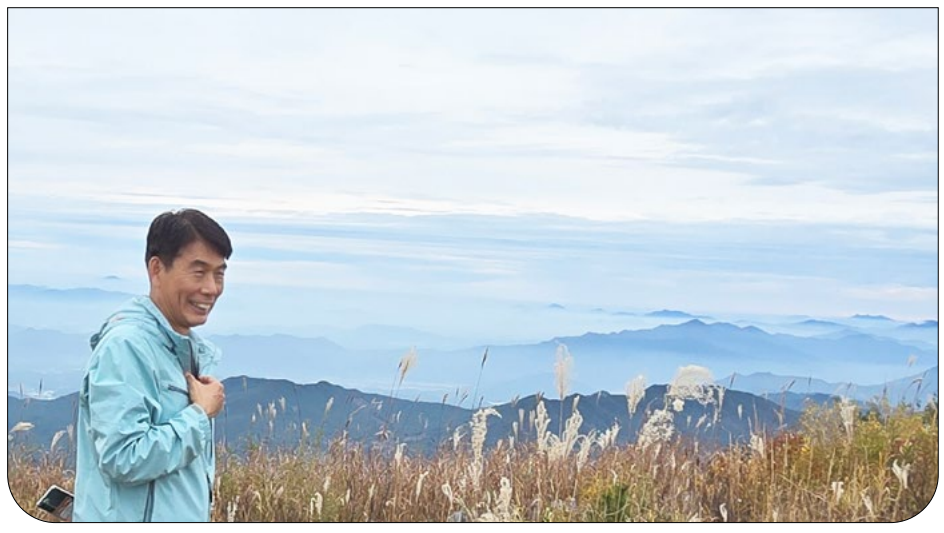
남욱현 워싱턴DC 지부 회장 부부도 일본 여행을 함께 했다.

필라델피아 이성숙(왼쪽) 동문과 황호숙 미주동창회장.

지리산 구룡폭포 올라가는 길에서 포즈를 취한 동문들.

순천 선암사의 감나무 앞에 선 동문들.

남도 여행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미식 여행이다. 동문들은 여수, 순천에서 싱싱한 해산물과 산나물로 차려진 풍성한 밥상을 즐겼다.



지리산 정령치 갈대밭에 선 고은옥 동문.

가와바타 야스나리의《설국》에서 플라톤의《국가론》까지

일본 문학의 깊이와 서양 철학의 지혜를 읽다

서울대 뉴욕 북클럽 제 13 차 정기 발표회

서울대 뉴욕 북클럽(신응남 대표·미주동창회 15대 회장)은 지난 10월 9일 베이사이드 〈거성〉에서 정기 발표회를 개최했다. 교재로 택한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설국》과 일본의 셰익스피어로 알려진 나쓰메 소세키의 《마음》, 그리고 플라톤의 《국가론》을 읽고 진지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문학인들은 매해 10월이 되면 "올해 노벨문학상 작가는 누가 될까?" 하고 궁금해한다. 마침 북클럽 행사 당일, 스웨덴 한림원은 2026년도 수상자로 캐나다 시인·고전학자 앤 카슨(Anne Carson)을 발표하며, 그녀를 "고전 전통과 현대 문학을 대담하게 결합해 새로운 형식을 창조한 작가"라고 평가했다. 앤 카슨은 1950년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태어난 시인, 수필가, 번역가, 고전학자이다.

서울대 뉴욕 북클럽 회원들이 지난 10월 9일 모임을 갖고 가와바타 야스나리의《설국》, 나쓰메 소세키의《마음》, 그리고 플라톤의《국가론》을 읽고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왼쪽부터)《설국》《마음》《국가론》 책 표지.

이날 첫 번째 발표자인 이민경(미대 85) 동문이 《설국》에 대한 독후감을 전했다. 가와바타 야스나리(1899~1972년)의 《설국》은 일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안겨준 명작이다. 일본 니가타현의 눈이 많이 내리는 온천 지방이 작품의 무대다. 《데미안》의 "새는 알을 깨고 세상에 나온다. 알은 곧 세상이다"라는 구절같이, 《설국》도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설국이었다"라는 명문장으로 시작한다. 긴 터널을 지나 눈으로 뒤덮인 세계로의 장면은 현실과 단절된 특별한 세계로의 이동을 상징한다.

주인공 시마무라는 도쿄에 사는 부유한 남자로, 실제 삶에서는 관찰자다. 그는 온천 마을에서 젊은 게이샤 고마코를 만난다. 고마코는 시마무라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주지만, 시마무라는 그녀와 현실적인 삶을 함께할 생각은 없다.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 끌리면서도 다른 위치에 있다.

또 다른 인물로 요코가 등장한다. 요코는 병든 유키오를 돌보고 있으며, 유키오는 고마코와 애인 관계로 연결된 인물이다. 요코는 고마코와 대조적으로 조용하고 신비로운 느낌을 주는 인물이다. 시마무라는 고마코와 관계를 맺으면서도 요코에게 관심을 갖는다. 마지막 장면은, 누에고치 창고에서 큰 화재가 발생한다. 요코가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고, 고마코는 요코를 구하려 달려가고, 시마무라는 그 장면을 그저 바라본다. 사건의 결과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채 소설은 끝난다.

《설국》은 시마무라와 고마코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이야기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보면 사랑과 삶의 거리, 아름다움과 덧없음, 인간의 고독에 관한 이야기다. 시마무라는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지만 그 아름다움 속에서 실제로 살아가지는 않는다. 반면, 고마코는 그 속에서 사랑하고, 아파하며 살아간다.

두 번째 발표자 신응남(농대 70) 동문은 나쓰메 소세키의 《마음》을 소개했다. 나쓰메 소세키(1867~1916)는 국비 유학생으로 영국에서 유학을 했다. 1903년 귀국 후 《나는 고양이로소이다》(1905)가 호평을 받으면서 작가의 길에 들어선다. 이후 《도련님》(1906), 《마음》(1914) 등을 연재하며 일본인들에게 '국민 작가'라고 불리며 사랑받는 작가다. 과연 마음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소설 《마음》은 〈선생님과 나〉, 〈부모님과 나〉, 〈선생님의 유서〉의 세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주인공인 '나'는 가마쿠라에 해수욕을 갔다가 눈길을 끄는 한 중년 남성을 발견하게 된다. 그 남자는 단번에 나의 눈길을 끈다. 나는 그를 '선생님'이라 부르기로 마음먹고 가까이 다가간다. 첫 번째 이야기인 〈선생님과 나〉는 나의 시각에서 선생님을 그려나간다는 점에서 현대 소설 장르의 미스터리와 무척 닮아 있다. 선생님은 그 고독을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매달 같은 날 찾아가는 친구 조시가야 묘지도 그렇다. 화자가 그곳으로 선생님을 찾아가자 선생님은 매우 민감한 비밀이 발각되기라도 한 듯 난감해한다. 선생님이 절대로 그에게 말해주지 않는 어떤 것, 누구나 함부로 그 중심까지 다가갈 수는 없는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인 〈부모님과 나〉는 도쿄의 대학을 졸업한 그에게 부모가 크게 기대하는 실상이 나의 현실과 어긋나는 것이기에, 그 자체가 그를 외롭게 한다. 가장 익숙하고 편안해야 할 가족이란 공간이 그를 더욱 쓸쓸하게 만들고, 가장 편안해야 할 고향이 그를 초라하게 만든다.

이번 발표회의 핵심 과제인 플라톤(BC 427~AD 347)의 《국가론》 요약 및 발표 내용이 이어졌다. 플라톤은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사형에 처해지자 정치가의 꿈을 버리고 철학자가 되기로 결심한다. 《국가론》은 철인정치를 통한 이상국가 설립이 핵심으로 모두 10권(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론》은 먼저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올바름을 가르치는 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한다. 플라톤의 《국가론》에는 정의에 대한 소크라테스와 소피스트인 트라시마코스의 논쟁이 전해진다. "정의란 강자의 이득을 옹호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소? 강자의 이득은 본래 약자의 손실이요. 불의는 그것이 충분히 이루어졌을 경우에 정의보다 더욱 강력한 힘과 권력을 갖게 되는 거요." 트라시마코스는 사람들은 입으로는 정의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올바르게 사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하며 정의와는 다르게 산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그 유명한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한다. 즉 태양, 선분, 동굴의 비유이다. 플라톤은 지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불완전한 그림자일 뿐이고, 눈으로 볼 수 없는 이데아야말로 영원한 존재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동굴의 비유에서 이데아의 세계는 곧 태양으로 비유되며 사람들은 태양에 의해 동굴에 비치는 불완전한 그림자를 이데아라고 착각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플라톤이 활동하던 시대는 펠로폰네소스 전쟁과 아테네 민주정치의 타락 등 중우정치와 금권정치가 난무했다. 마치 중국의 전국시대와 같은 혼란의 시대였다. 비슷한 시대를 산 플라톤과 맹자는 폭력과 악이 난무할 때 왕도정치, 올바른 삶과 정의, 철인에 의한 이상국가를 주창했다.

각론의 첫 발표인 제2권(좋은 것의 3가지)은 최형무(법대 69) 동문이 다음과 같이 요약 발표했다. 좋은 것들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그 자체로 좋은 것, 둘째 그것에서 생기는 결과 때문에 좋은 것, 셋째 그 자체도 좋고 또 그것에서 생기는 결과 때문에도 좋은 것이 있다. 이들 중에서 어느 것이 올바름에 속하는가를 소크라테스에게 물었더니 그야 물론 셋째가 가장 좋다는 대답을 얻어냈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는 "올바름"은 그 자체보다 그것이 가져다주는 보수나 평판 때문이 아니냐고 반론을 편다.

본질적으로 국가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성향에 따른 분업의 효용성 때문에 생기게 된 공동체인데, 최소한도의 필요만 충족시키는 나라에서 "호사스러운" 나라로 확장되어간다고 한다. 이같이 국가가 더 큰 발전을 추구할 때 서로 필요한 것들을 쟁취하기 위해 전쟁을 하게 되는 상황이 일어난다.

나라를 지키고 다스릴 수호자가 필요하게 되고 전문성을 요하므로, 철학적인 소양을 갖춘 사람들이 이끌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과거 왕조 시대 관료들을 선발하기 위한 과거 제도에서 응시자들을 시문으로 선발했던 역사를 생각하면, 이와 일맥상통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각론 두 번째 순서로 천흥규(상대 84) 동문이 제6권, 국가의 운영 & 이데아 부분을 요약 발표했다. 통치자는 철학자여야 한다. 그 성품은 영원한 진리(이데아)를 사랑하며, 돈, 물욕, 육체적 쾌락에 미혹되지 않고 넓은 시야와 도량이 필요하다. 최고 지식, 최고의 선 "이데아"란 지고의 선(Good)이며 정의, 절제, 용기 등 모든 덕과 진리를 갖추게 한다. 태양의 빛으로 사물을 온전히 보듯 이데아의 선으로 진리를 비추어야 영혼이 대상을 올바르게 인식한다.

각론 세 번째 발표는 김봉중(미대 84) 동문이 제7권에서 말하는 〈가시적 현상세계〉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1. 동굴의 비유가 핵심이다. 플라톤은 동굴 비유를 통해 인간이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세계가 사실은 진정한 실재의 그림자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2. 가시적 현상세계란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경험하는 세계를 말한다. 즉 현상세계는 변하고 사라지는 것, 이데아 세계는 변하지 않는 참된 실재이다.

3. 왜 현상세계가 그림자인가? 동굴 속 사람들은 벽의 그림자를 진짜 현실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그림자는 실제 사물의 반영일 뿐이다. 이번 발표회에서 선택된 일본의 대표작인 《설국》과 《마음》을 통해 이웃 나라 일본을 심층적으로 이해하여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대두되는 친일, 반일의 화두에서 자유롭게 사유할 수 있는 식견을 키우기를 바란다. 더하여 서양 철학의 근간이랄 수 있는 플라톤의 《국가론》을 통하여 동서양 철학의 발전 단계를 이해하는 안목을 넓히기를 염원하며 진지한 토론의 시간을 이어갔다. 멤버들은 올해의 끝모임이 될 다음 14차 모임을 12월 11일로 정하고 발표회를 마무리 지었다.

글·사진=서울대 뉴욕 북클럽 제공

김량국 동문이 전하는 창업네트워크 소식

생성형 AI의 '생각' 작동 원리

AI는 어떻게 답변을 만들어 내나? AI의 사고 방식 조명

서울대 미주동창회 창업네트워크(기업넷)의 10월 정기 모임 주제는 "AI의 생각"이었다. 김량국 동문(사대 92·Oak Bioinformatics 대표)이 "AI의 생각"을 주제로 ChatGPT나 Claude 같은 AI 대화 서비스가 사용하는 생성형 AI가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답변을 만들어 내는지 살펴보는 자리였다. 생성형 AI에서 의미를 표현하는 기본 단위는 '토큰'이지만, 설명의 편의를 위해 이번 발표에서는 '단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김 동문은 먼저 AI가 의미를 표현하고 처리하는 방식을 설명했다. 사람의 뇌가 '왕', '여왕', '남자', '여자'와 같은 단어의 의미를 어떻게 저장하는지는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AI는 단어와 문장의 의미를 수천개에서 수만개의 수치로 구성된 벡터로 표현한다. 이를 의미 벡터라고 한다.

의미가 존재하는 고차원 공간을 가정하면, 의미 벡터는 그 공간에서 각 의미의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와 같다. 이 공간에서는 의미가 비슷한 단어들이 상대적으로 가까이 존재하는 경향이 있다. 단어뿐 아니라 문장과 문단, 문서도 벡터로 표현할 수 있으며, 벡터 사이의 거리를 계산해 의미적 유사성을 비교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AI가 질문과 관련된 정보를 찾는 데 활용된다.

하지만, 의미가 불확실한 단어들이 있다. 'Bank'는 은행도 될 수 있고 강둑도 될 수 있어서, 'bank account'인지 'river bank'인지 옆 단어를 고려해야 그 의미가 확실해진다. 즉, bank의 의미 벡터의 기본값은 은행도 강둑도 지시하지 않지만, 옆 단어를 살펴보는 단계를 거치면서 그 중 하나만을 의미하는 의미 벡터로 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다른 단어와의 결부 관계를 살펴 단어의 의미 벡터를 업데이트하는 걸 어텐션(attention)이라 한다. 문장 사이의 문맥은 한 번의 어텐션으로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The boy dropped the glass. His mother sighed."를 보자. 첫번째 어텐션으로 his와 boy의 그리고 mother와 his의 관계는 명확해지지만 boy와 mother의 관계는 확실하게 파악되지 않는다. 두번째 어텐션에서 boy의 뜻을 함유한 his와 mother가 결부됨으로써 mother가 boy의 엄마라는 관계가 명확해지고 그 의미는 mother의 의미 벡터에 저장된다(생성형 AI 모델은 뒷 단어의 의미 벡터만을 조정한다). 이렇게 여러 층의 어텐션을 거치면서 단어 사이의 관계가 점차 통합되고, 문맥에 대한 정보가 표현에 반영되는 것이다.

최신 AI 모델들은 수십에서 백여번 어텐션을 반복하며, 어텐션과 전통적인 다층 신경망(MLP)을 결합하여 종합적 의미 또한 의미 벡터의 조절로 저장한다.

생성형 AI 모델은, 사용자가 글을 보내면, 앞서 설명한 과정으로 앞의 문맥을 뒤의 단어에 실음으로써, 가장 마지막 단어의 의미 벡터에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데 필요한 문맥이 들어가도록 한 뒤, 모델의 단어 목록에 있는 각 단어에 대해, 각 단어가 사용자 글 뒤에 올 확률을 예측한다. 단어의 확률과 모델의 무작위성 기준에 따라 다음 단어가 선택되고, 이 단어가 더해진 전체 글에 대해 같은 과정이 반복된다. 이렇게 단어를 붙여 가다 출력 종료를 뜻하는 단어가 선택이 되면, 사용자에 대한 답변이 완성된다.

따라서, 생성형 AI의 '생각'이란, 어떤 단어가 다음 단어로 가장 문맥에 맞을지 의미 벡터를 스스로 조절함으로써 문맥의 이해와 종합을 반복하는 과정이다.

김 동문은 또한 AI의 생각을 내부적 사고와 외부적 사고의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했다. 내부적 사고는 지금까지 설명한, 우리가 볼 수 없는 AI의 계산 과정이고, 외부적 사고는 AI가 내부적 사고의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글로 기록하며 연속적으로 사고하는 것이다. 수학 문제를 풀 때 중간 과정을 종이에 써가며 계산하는 것과 같다. 이를 연쇄적 사고 (Chain of Thought)라고 부른다.

외부적 사고는 AI의 기능을 넓혀 준다. AI 모델에는 최신 정보가 없지만, 인터넷 검색으로 얻은 최신 정보를 중간 정보로 기록한 뒤 연쇄적 사고를 함으로써 AI의 사고 과정에 최신 정보를 넣을 수 있다.

AI 모델에는 (모든) 수학 계산 결과가 없지만, 수학 계산 프로그램을 도구로 부르고 계산 결과를 중간 정보로 기록한 뒤 연쇄적 사고를 함으로써 AI의 사고 과정에 수학 계산의 결과를 넣을 수 있다.

발표 후반부에서는 AI의 생각 방식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네 가지 흐름이 소개됐다. 이번 발표에서 소개된 흐름들의 공통점은, AI의 '생각'은 인간의 언어를 매개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언어의 한계를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모임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인공지능의 작동 원리를 비유와 사례를 통해 이해하고, AI 기술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지를 함께 생각해 보는 자리였다.

기업넷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동문들이 새로운 기술과 사업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 가능성을 찾는 교류의 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창업과 투자에 관심 있는 동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 문의: rkim@oakbioinformatics.com

디자인=이경은(미학과 15)

My Reflection on the SNUAA USA Scholarship in Korea

From Neuroscience to Korean Culture: A Summer at SNU

Jennifer Hyekyeong Lee
Princeton University

This summer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gave me an experience I will carry with me for a long time.

I arrived excited to study at my grandfather's alma mater and to spend time in a country that has always been an important part of my life. I left with a fuller appreciation for Korea: its history and traditions, its people and landscapes, and the many ways its past and present come together.

At SNU, I took Introduction to Personality and Mental Health with Professor Park Young Soo and Topics in Future Healthcare with Professor Seo Jongmo. Both courses built naturally on my background in neuroscience while introducing me to perspectives on mental health and healthcare that I had not encountered in the same way before. I was especially grateful for the professors' welcoming approach and the close classroom environment. In Topics in Future Healthcare, we were introduced to surgical tools used in operating rooms and had the opportunity to handle them while learning how they are used in practice. A visit to the SNUH Institute of Convergence Medicine and Technology extended this learning even further, giving us the opportunity to see how artificial intelligence and virtual reality are being explored for medical education and healthcare.

The program also reminded me that learning does not end when we leave the classroom. Cultural excursions to Gyeongbokgung Palace,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Gwangjang Market, and the DMZ allowed me to encounter Korea through its history, traditions, and contemporary life. Some of my most meaningful moments happened between destinations. Traveling with students from around the world gave us time to exchange perspectives, learn about one another, and share our experiences of Korea. Seeing

Visiting Gyeonghoeru Pavilion at Gyeongbokgung Palace during an SNU ISP field trip.

Korea through their eyes made me look more closely at aspects of my own culture that had always felt familiar, from its language and food to its customs and traditions.

I especially appreciated how the program encouraged us to learn about Korea by experiencing it firsthand. From traditional Korean cuisine to international restaurants and from historic sites to modern spaces shaped by technology and innovation, I found myself seeing familiar parts of Korea with fresh eyes. The experience deepened my appreciation for the ways Korea's history, culture, and continued innovation exist alongside one another.

I am sincerely grateful to SNUAA-USA and, in particular, to Kwang and Kook-Wha Koh for making this experience possible. Their generosity allowed me to study at SNU and make the most of a summer that extended far beyond the classroom. I am proud to have been part of a community that invests in students and helps them build a deeper connection with SNU and Korea. I return home proud of my country and even more curious about it. There is always another place to see, another story to learn, and, somehow, another reason to love Korea.

Rooted & Connected: Exploring Korea with Global Eyes

Arrim Jung
Carnegie Mellon University

Coming back to Korea, I had the peculiar experience of being part of the majority rather than the minority. Everywhere I looked I felt a greater sense of kinship to strangers who looked like my aunts and uncles and grandmas. I felt a sense of privilege having doors and sinks be at a comfortable height. Snacks that I could seldom find in America were on every street. It was a Goldilocks moment of feeling like everything was "just right"… perhaps the feeling of coming home.

Something I didn't expect from the program was the number of international friends it gifted me. The people I was staying in the dorms and going to classes with were from Italy, Canada, the United Kingdom, India, the Philippines, and Hong Kong. While exploring Seoul or ordering delivery food together, I was able to see Korea through the lenses of multiple cultures. This also gave me the opportunity to learn the various aspects of Korea that drew them into the program.

Of the cultural excursion trips we went on, the most memorable was the one to the DMZ. It was deeply moving to be in a place holding the harshest wound of my country. However, I was also struck with the ironic commodification of tourism through amusement parks, souvenirs, and promotion of wildlife preservation in the area. The lack of written information at landmarks also left me wanting more gravity in the portrayal of our own history.

Seoul has so much to do and the countryside has so much to soak in. In the city, I bounced around from comic book cafes, board game cafes, cat cafes, study cafes, escape rooms, and coin karaoke. On every corner of cities like

Posing with my classmates after receiving our certificates and teddy bears at the Closing Ceremony.

Hongdae or Gangnam there were rows of tantalizing accessories. Restaurant owners were competing to lure any wandering eye into their shop. On the other hand, the countryside roads had stretches of pine trees and sparkling rivers. I settled into my grandmother's house and bit into fresh, rich peaches that enlightened my taste buds. I sat down for a picnic with my family and ate glutinous corn in the mountains. I felt my soul come to a respite it had missed for years.

I was also uniquely able to get integrated into the community of Christian college student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fter worshipping together in a bilingual service, we would eat lunch together and hang out in the club room. Although I was in the same dining halls and school buildings with them as I was with my international friends, I admired the different feeling of being there with SNU brothers and sisters. Their humor, references, slang, and even the way they made decisions was at a higher speed and caliber than I was used to.

My summer in South Korea was the greatest blessing of the year, not only connecting me back to my culture but allowed me to see Korea through a foreign, diasporic, and insider perspective.

My Reflection on the SNUAA USA Scholarship in Korea

Robots, Art, and Gwanaksan: A Transformative Summer at SNU

Isaac Kim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My time at Seoul National University's International Summer Program was one of the most memorable experiences I've ever had. Coming to Korea, I was excited to interact with a different environment, meet new people, and learn through classes at SNU. Looking back, some of my favorite memories came from the combination of academics, exploring Korea, and the people I met along the way. The classes that I took in Korea were insightful in many ways. Korean Art and Asian Painting was my favorite class, as it differed from the STEM-focused classes that I was taking at UCSD [1]. It also allowed me to explore the culture of Korea, which can sometimes be difficult to do in America. The other classes were also very enjoyable and beneficial for my specific major, as I was able to become familiar with how to program a humanoid robot and obtain a deeper understanding of Python and coding in general. Beyond just studying the course material, being in an international program allowed me to interact with students from different backgrounds and hear about their journeys. This made the classroom dynamic much more interesting and gave me a better appreciation for learning in an international environment. Outside of the classroom, I took tours of famous Korean landmarks and visited different places around Seoul to help me better understand the history and culture that I had heard about in class. Experiencing these places in person made the things I was taught feel much more meaningful. It was also interesting to compare what I saw in Korea with my experiences growing up in America, especially because I have always wanted to learn more about Korean culture. These

At the peak of Gwanaksan, with my roommate Matthew (another scholarship recipient).

excursions made my stay in Korea feel much more personal and gave me a greater appreciation for the country and its culture. Another major contributing factor in making this program unforgettable was the people I met. Spending time with them made the summer much more enjoyable, from studying together to playing basketball. One of the most memorable activities was hiking to the peak of Gwanaksan. Although challenging, the view from the top made it all worth it [2]. Being outside, enjoying the scenery, and bonding with other students made it an experience that I will remember forever.

Overall, my time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was more than just taking classes in Korea. It allowed me to learn, explore, and make memories with people I would not have otherwise met. Thank you so much to everyone who has made this possible; I am truly grateful that I was able to be part of the SNU International Summer Program. I'm honored to have been selected for the SNUAA Scholarship program, and I hope to carry the experiences and friendships from this summer with me in the future.

Finding Self, An Intensive Academic and Cultural Journey

Lauren Le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During the summer, I earned a valuable experience by participating in the SNU ISP Program. During the program, I obtained valuable cultural and academic knowledge by taking 2 intensive college courses, interacting with fellow classmates, and going on cultural excursions through the weekly field trip that happened on Saturdays. I was thankful for this opportunity, because it not only allowed me to be extra productive this summer, but also helped me learn invaluable lessons. I thoroughly enjoyed my classes, since they allowed me to expand beyond the curriculum offered at my home institution,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When engaging with coursework and interacting with fellow classmates through discussion or group projects, I learned not just academic skills, but about the cultures of many nations through interactions with students from India, Lithuania, Italy, China, and Korea. Having the honor to take classes and stay in the dorm of a renowned institution such as Seoul National University, ignited a sense of pride and joy in me. I enjoyed venturing the beautiful campus which was filled with different shruberies, and a variety of excellent study locations, like the beautiful library, calm cafes, and vast fields. I also learned more about my identity through SNU ISP. By sharing my favorite restaurants in Seoul with my friends, teaching Korean, and going on field trips, I got to teach others and get to know myself better in the process. I was proud to share information about Korean culture with my Lithuanian friends, who were eager to learn Korean phrases, trends, and popular foods. Getting more opportunities to embrace my mother tongue and teaching my friends about positive aspects like Korean hospitality made me realize that there's so much more to my identity than just being a Kore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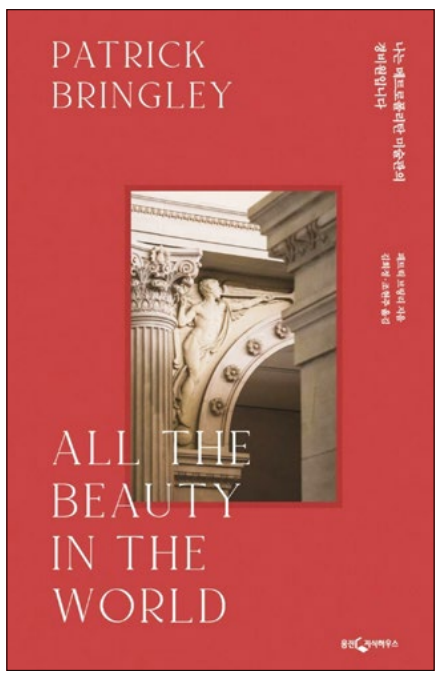
Dinner at a Jjajangmyeon place near campus with fellow SNU USA scholars.

American. As a Korean American who visits Korea every year, the field trip destinations initially seemed cliché to me. However, experiencing them with my friends made them feel different, allowing me to appreciate new aspects of places I had previously visited only with family or on my own. I was incredibly grateful that, in addition to receiving the SNUAA Scholarship, I had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the SNU ISP program. The experience was truly indispensable to my growth, giving me opportunities to learn, explore, and connect with Korea in ways that I could not have experienced otherwise. Beyond the classroom, I was able to form meaningful friendships, experience new perspectives, and discover a different side of Korea even as someone who has visited the country many times before. These experiences have left a lasting impact on me, and I believe that every student who has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SNU ISP should take full advantage of it. I sincerely hope that this program will continue to be offered to future scholarship recipients, so that they too can benefit from the invaluable experiences, connections, and memories that the program provides.

박상호 동문의 가려진 책을 찾아서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상실의 고통을 위로한 예술 그리고 다시 앞으로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표지와 책에서 소개된 피렌체 화가 니콜로 디 피에트로 제리니의 피에타 그림. 맨 오른쪽은 퍼시픽 크레스트 트레일 지도.

"세상을 살아갈 힘을 잃어버렸을 때 나는 내가 아는 가장 아름다운 곳에 숨기로 했다"

미술관 경비원 10년, 홀로 고독 속에서 쓴 삶과 죽음, 예술에 대한 아름답고 슬픈 이야기

하늘의 별처럼 빛나며 모든 사람들에게서 사랑과 존경을 받던 26살 형을 땅에 묻은 후, 동생은 어머니와 함께 필라델피아에 사는 어머니의 형제자매들을 찾아간다. 모자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비극이 일어났지만, 세상은 여전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 감겨진 태엽을 풀어 헤치며 자연스럽게 째깍거리며 돌아간다. 하늘은 어제의 깊이만큼 눈이 부시도록 푸르고, 발아래 온갖 생물들은 변함없이 바삐 가야 할 길을 재촉한다. 그들은 우연히 도시의 미술관에 들어가 각자의 순례길을 걷는 시간을 가진다. 후에 저자가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경비가 되는 숙명 같은 모습과 시간이 이곳에서 펼쳐진다. 나는 책 안에서 묘사되는 미술관에 전시된 작품들 하나하나를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작품의 배경과 화가의 인생을 뒤적여 가며 책을 읽어 나갔다. 저자가 풀어내는 박물관의 여러 군상과 형상, 그리고 수채화처럼 이어지는 작품 설명을 함께하니 까마득한 과거 30여 년 전에 읽었던 곰브리치의 《서양 미술사》가 다시 눈앞에 일어서는 기쁨을 느낀다. 이번 글에서 소개하는 책은 패트릭 브링리(Patrick Bringley)의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영어 제목: All the Beauty in the World)이다.

분명 이 책은 가려진 책이 아니다. 세상을 향해 자신의 모든 페이지를 펼치고 있는, 너무나도 잘 알려진 베스트셀러이다. 책의 선정에 변화를 주는 까닭을 설명하려면 잠시 트레킹 이야기를 꺼내야 할 듯하다.

멕시코 국경에서 시작하여 캐나다 국경까지 미국 서부 산맥의 능선을 따라 대략 2,650마일을 걸어가는 미국 서부 지역 장거리 종단 트레일이 있다. PCT(Pacific Crest Trail) 트레킹 코스다. 긴 여정의 목적지인 캐나다 지역에 눈이 쏟아지기 전에 일정을 마치려면 보통 4~5월에 멕시코 국경에서 짐을 등에 메고 출발해야 한다. 평균 4~6개월의 소요 시간이 걸리는 여정이다. 4명이 걷기 시작하면 보통 한 명만이 트레일의 끝에 도착한다. 그들은 모두 각자의 목적을 위해 걸어간다.

단 한 번의 기회를 얻어 태어나고 단 한 번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에게 삶의 가치는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존재한다. 각자가 짊어진 무게와 스스로 소중히 여기는 삶의 의미로 다가온다. 그러한 까닭에 여정을 시작하는 모든 이의 바람은 다르다. 그들이 바라보는 곳이 다를지 모르지만, 누가 옳은 결정을 했고 무엇이 맞다는 말을 하는 것은 어리석다. 그들은 생의 한가운데에서 그 누구의 강요 없이 자신의 가려진 삶을 찾으려 자연의 한 복판으로 나아간다. 자신의 의지로 걸어가는 까닭에 그들은 그 누군가의 판단으로부터 자유롭다.

나의 책 구입에는 커다란 원칙이 있다. 장르를 국한시키지 않고 모든 분야의 책을 읽으려 한다. 하지만 제외시키는 책들이 있다. 자기계발서와 베스트셀러는 가능한 장바구니에서 탈락시킨다. 하지만 고전, 과학, 인문사회학, 철학, 예술, 문학이론 분야의 베스트셀러 책들은 바구니 안에서 살아남는다. 하지만 이러한 습관은 스스로를 독서의 한계점으로 몰고 간다.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가시투성이 엉겅퀴를 삼켜대는 것과 흡사하다. 그래서 간혹 삶의 모든 것을 위로하기 위해 PCT 트레킹을 하는 사람들처럼 밀리언셀러 책들을 공을 들여 사냥한다. 그렇게 내 손에 잡힌 책이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이다.

책의 초반부에 나오는, 아래 붙인 글이 저자에게 운명처럼 벌어지는 모든 여정의 시작이다.

어머니를 찾으러 초기 르네상스 전시실로 갔다. 어머니는 내가 찾은 그림보다 더 인정사정없고 더 아름다우며 심지어 더 진실되어 보이는 그림 앞에 서 있다. 14세기에 활동한 피렌체 출신의 '니콜로 디 피에트로'라는 거장이 그린 그림이었다. 특징 없는 금색 배경 앞으로 매우 아름답지만 당돌하리만치 죽은 게 확실한 젊은이를 그의 어머니가 온몸으로 받치고 있는 장면이다. 마치 아들이 살아 있는 것처럼 그를 껴안고 있는 어머니를 그린 이 그림은 '통곡(Lamentation)' 혹은 '피에타(Pieta)'라고 부르는 장르에 속한다.

어머니는 늘 잘 울었다. 결혼식에서나 영화관에서나 눈물을 흘리곤 하는 사람이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어깨가 흔들리고 있었다. 나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녀가 심장이 부서지는 동시에 충만해져서 그렇게 울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그림이 어머니 안의 사랑을 깨워서 위안과 고통 둘 다를 가져다주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경배'를 할 때 아름다움을 이해한다. '통곡'을 할 때 '삶은 고통이다'라는 오래된 격언에 담긴 지혜의 의미를 깨닫는다. 위대한 그림은 거대한 바위처럼 보일 때가 있다. 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냉혹하고 직접적이며 가슴을 저미는 바위 같은 현실 말이다.

한두 시간쯤 흘렀을까. 튼튼한 바위 기반처럼 느껴지는 미술관을 떠나 그 너머에서 존재감을 뽐내며 펼쳐진 소위 현실 세계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부모님과 누이 미아는 비행기를 타고 시카고로 돌아갔다. 나는 암트랙 기차를 타고 새로운 고향 뉴욕으로 향했다. 내 나이 스물다섯이었다. 모든 의미에서 어디로 갈지 갈피를 잡지 못한 채로 미드타운의 분주한 행인들 틈에 섞였다. 운 좋게 얻은 전도유망한 직장이 있는 마천루의 사무실로는 더 이상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다.

세상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애를 쓰고, 꾸역꾸역 긁고, 밀치고, 매달려야 하는 종류의 일은 할 수가 없었다. 나는 누군가를 잃었다. 거기서 더 앞으로 움직이고 싶지 않았다. 어떤 의미에서는 전혀 움직이고 싶지가 않았다. 필라델피아 미술관에서는 침묵 속에서 빙빙 돌고, 서성거리고, 다시 돌아가고, 교감하고, 눈을 들어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서 슬픔과 달콤함만을 느끼는 것이 허락되었다.

지친 승객들을 태우고 브루클린을 향해 달리는 지하철의 흔들림에 몸을 맡겼다. 그러다 한 생각이 머릿속에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나는 뉴욕의 훌륭한 미술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봐 왔다. 보이지 않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큐레이터들이 아니라 구석마다 경계를 늦추지 않고 서 있는 경비원들 말이다. 그들 중 한 사람이 되면 어떨까? 해결책이 이렇게 간단해도 되는 것일까?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는 세상에서 빠져나가 온종일 오로지 아름답기만 한 세상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속임수가 과연 가능한 것일까? 브루클린의 5번가를 따라 걸으면서 멕시코 식당 대여섯 개를 지나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 3층에 있는 집에 도착했다. 문에 열쇠를 넣고 돌릴 즈음에는 모든 것이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게 느껴졌다. 그렇게 2008년 가을,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일을 시작했다.

책의 저자가 위에서 언급한 '운 좋게 얻은 전도유망한 직장'은 바로 《뉴요커》 잡지사다. 1925년 창간된 미국의 주간 시사교양잡지로 미국의 문화, 정치, 문학, 예술 분야를 다루는 지성지다. 특히 문학 분야에서 날카로운 평론과 단편, 시, 카툰 등을 포함하여 표지 일러스트의 명성이 높았다. 잡지를 통해 탄탄한 소설가의 발판을 다진 작가들을 나열한다. 《호밀밭의 파수꾼》을 쓴 'J.D. 샐린저', 《The Swimmer》의 '존 치버', 《토끼》의 '존 업다이크', 《노르웨이의 숲》의 '무라카미 하루키', 《브로크백 마운틴》의 '애니 프루', 《디어 라이프》의 '앨리스 먼로', 《에브리맨》의 '필립 로스' 등 수를 헤아릴 수 없다. 문화계 저널리스트를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뉴요커》 잡지사는 최고 선망의 직장이다. 그곳에서는 넓은 유리창 너머로 하늘로 솟구치고 있는 뉴욕 한복판의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이 보인다. 저자는 바로 꿈의 직장을 포기한 것이다.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가 곁을 떠나면 그 모든 아픔과 충격은 고스란히 남겨진 자의 몫으로 남는다. 가슴속 한곳에 영원히 묻어둘 것인지, 멀리 떠나보낼 것인지, 어디에도 정답이 없다. 얼마만큼의 거리를 띄워 사자(死者)의 존재를 바라보아야 슬픔의 상처를 견딜 수 있는지 아무런 단서가 없다. 사지(死地)의 한복판으로 걸어가는 사랑하는 이에게 언제 두 손을 흔들어 마지막 인사를 보내야 그와의 소중한 기억을 아름답게

내 반평생의 숙제,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를 묻다

"사람은 서로를 이해할 때 변하는 법, 이해는 치유의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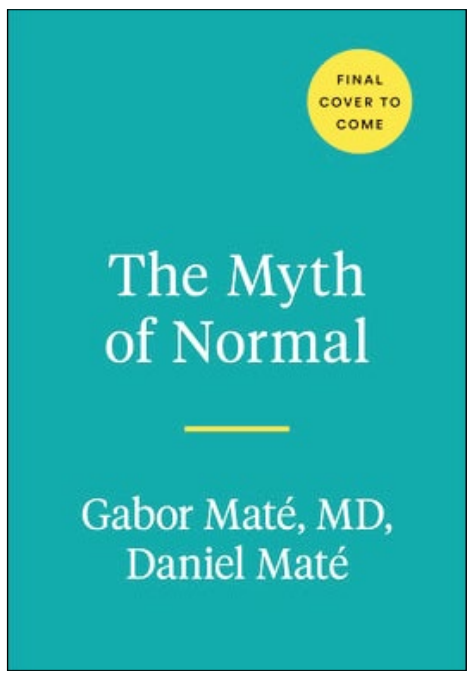
천양곡
(의대 63·시카고)

수백만 명이 동일한 사악함(malice)을 공유한다고 해서 그 사악함에 잘못이 없다는 것은 틀린 말이다. 같은 맥락으로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정신증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정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사랑의 기술' 이라는 책을 쓴 20세기 독일계 유대인 미국 사회심리 학자 에리히 프롬(Erich Fromm)의 주장이다.

모든 질병, 특히 정신질환에서 정상과 비정상에 대한 명확한 경계는 존재할까? 이에 대한 의문과 호기심은 의대 다닐 때부터 내 반평생의 숙제가 되었다. 이 질문에 정신의학은 물론 어느 학문도 확실한 답을 주지 않는다. 다수와 다르다는 이유로 혹은 마음 고통이 보통사람들보다 심하다고 해서 곧바로 정신병 환자로 부르지는 않기 때문이다.

20세기에 들어와 전통 정신의학을 정면으로 비판한 대표적 정신과 의사가 토머스 사즈와 R.D. 랭이다. 그들은 "정신질환은 질병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정신병은 신체 질병과 달리 객관적 병리 소견이 없고, 단지 사회적 규범을 벗어난 사고와 행동을 병으로 단정짓는 것은 헛소리 일 뿐이라 반박했다. 하지만 현대 정신과 의사 대부분은 정신질환은 뇌 자체에 병리적 이상이 발견되고 이로 인해 질병 증세를 나타낸다고 믿는다. 정신분석을 전공한 심리학자 또한 정신치료를 하면 마음은 물론, 뇌조직의 구조적 기능까지 호전된다고 거들고 나서고 있다.

일상의 삶을 살며 우리는 모든 활동 영역의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선 위에서 방황한다. 오늘은 이쪽, 내일은 저쪽, 어제는 낮은 곳으로, 오늘은 높은 곳으로 왔다 갔다 하며 사는 존재가 인간이다. 실제로 임상 현장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정상과 비정상을 가르는 선이 그리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다. 똑같은 고통과 상실을 겪어도 누구는 견디고, 누구는 무너진다. 누군가는 잠 못 이루고, 누구는 너무 자고, 누군가는 반복되는 생각의 늪에서 쉽게 빠져 나오고, 누군가는 계속 헤맨다. 또 누군가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사람과 대화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사고 속에서 보통사람들과 다른 세상을 살아간다. 이런 사람들은 과연 정신병에 걸린 걸까, 아니면 잠시 힘든 삶의 어느 구간을 지나가고 있을 뿐일까, 이 역시 시원한 답을 줄 수 없다.



가보르 마테의 'Myth of Normal' 표지.

21세기 캐나다 정신과의사 가보르 마테(Gabor Mate')는 사즈나 랭과 다르게 전통 정신의학을 그리 심하게 비판하지 않는다. 대신 'Myth of Normal'(2022년 출간) 책을

통해 현대인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트라우마와 환경적 영향의 관점에서 해석하려는 노력을 한다. 그에 의하면 현대 사회는 병들어 있으며 우리가 정상이라고 믿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일 수 있다는 생각이다. 정신병을 사회가 만든 허구(Myth)라고 강조하기도 한다. 그는 사회가 어떻게 질병을 만들어 내는지를 날카롭게 바판하고 이를 해결할 심신의 건강 문제와 치유로 나이가는 길을 제시한다. 결론적으로 정신질환과 중독은 개인의 허물이라기 보다 병든 사회와 문화에 대한 반응이며 현대 문화는 경쟁과 과로, 과소비로 말미암아 사회적, 정서적 트라우마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금의 정신의학은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선을 크게 따지지 않는다. 정상과 비정상을 한 선상의 양끝에 세워 두고 그 사이 어딘가에 위치한 환자의 상황과 상태를 점검한다. 이렇게 모든 정신질환을 스펙트럼이란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 예를 들면 우울 스펙트럼 장애, 정신분열 스펙트럼 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 불안 스펙트럼 장애 등이다. 스펙트럼은 원래 물리학에서 빛의 파장을 설명할 때 사용 되었다. 지금은 여러 학문 분야에서 어떤 상황, 질병, 의견 등을 설명할 때 전체 범위에 속한 하나의 연속체를 뜻한다. 어떠한 물체나 상황, 질병을 더 작은 요소로 나누어도 전체로서의 특징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현상이다

정신병의 진단은 편의상 몇 가지 기준이 필요하다. 평균에서 얼마나 벗어났는가, 견디기 어려운 심적 고통이 어느 범주 선상에 있는가, 가정과 직장,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인관관계에 얼마나 큰 지장을 주는가, 본인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존재하는가, 시대와 문화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 있는가 등 여러 복합적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고통과 상실, 불면과 강박, 망상과 환각이 각 개인의 삶을 얼마나 얽매고 있는지, 인간관계를 얼마나 좁히고 있는지를 살펴 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가보르 마테를 비롯한 현대 정신과의 치료 방향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다. 치료는 저울의 추처럼 기울어진 심리적 균형을 다시 세워 주는 과정일 따름이다. 환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꿔 보려고 노력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다. 환자가 자신의 본래 자리로 찾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된다.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보다 환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왜 그런 불안을 느꼈을까 보다 어떤 환경속에 놓여 있었고, 어떤 영향을 받았기에 계속 좋지 않은 생각과 행동을 반복하는가를 묻는게 치료의 핵심이다.

사람은 고쳐지는게 아니라 서로가 이해가 될 때 변하는 법이다. 설령 환자의 문제가 기분 좋게 해결된 것이 아니어도 "이제 제가 저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하는 말이 치료의 일반적 목적이 아닐까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자 각자가 지니고 있는 심리적 자원과 환경적 차이점을 찾아내는게 치유의 첫째 단추를 끼우는 일이다.

은퇴 후 가르보 마테의 책을 읽으며 내 자신이 반평생 동안 관심을 가져 온 주제와 가까이 맞닿아 있음을 느낀다.

알림

10월호에 실린 천양곡 동문의 기고문 '반평생의 숙제: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는?' 본문이 편집 과정상의 착오로 인해 원문과 다른 내용이 게재되었습니다. 소중한 글을 보내주신 천양곡 동문과 기사를 읽으신 동문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리며, 올바른 본문을 다시 싣습니다.

간직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지만, 현명함은 그 어디에서도 자리를 찾지 못한다. 시간적 제약도 없이 밝은 낮과 칠흑 같은 밤의 순번 속에서 가슴속으로 칼날 같은 이별의 아픔이 수없이 달려들 것이다. 꼭 보내야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살아있는 자는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가 쓴 《죽음이란 무엇인가(On Death and Dying)》 라는 책이 있다. 스위스 출신의 미국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 그녀는 자신의 책에서 사람들이 죽음을 인식하는 5단계의 이론을 펼친다.

부정(Denial) - 분노(Anger) - 타협(Bargaining) - 우울(Depression) - 수용(Acceptance)사람들은 이 단계들의 순서를 저마다의 방법으로 뒤섞어 나열한다. 누군가는 아픔을 참을 수 없어 치유의 도중에 숨막히는 처음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 저승사자처럼 자신에게 다가오는 죽음에 대해 나아가는 연구였지만, 이 이론은 소중한 존재를 상실한 모든 이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누군가를 떠나보낸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확대 적용될 수 있다.

저자는 운이 좋았다. 그는 10년간 경비원으로 지낸 미술관에서 수천 년의 시간이 너울대는 고대 유물의 호흡을 느끼면서 기나긴 과거의 늪 속으로 자신의 아픔을 가라앉혔다. 수많은 거장들의 찬란한 작품 속에 자신의 추억을 녹이며 지난 시간의 아름다움을 기억할 수 있었다. 미술관을 찾는 수많은 관람객들과 직장 동료들의 다양한 삶을 바라보면서 끝없이 달려드는 일상과 예술의 숨죽인 무늬를 섞어 삶의 의미를 직조할 수 있었다. 저자는 2018년 미술관을 떠나 두 번째 직업을 가졌다. 뉴욕 도보 여행 가이드로 활동하면서 비정기적으로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자신에게 끊임없이 물어보는 시간을 찾아야 한다. 이 땅 위에서의 하루하루가 스스로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 움직이고 있는지, 당신이 걷고 있는 길에서 당신이 바라고 꿈꾸던 파편들을 바라볼 수 있는지. 끝없이 펼쳐진 트레일(Trail)을 걷고 있는 사람들의 뒤를 쫓으며 그들이 뱉어낸 후회와 슬픔, 그리고 희망과 안식을 줍는다. 그림자는 태양의 높이와 기울기에 따라 길이를 달리할 뿐 언제나 자신의 발아래 숨죽이고 있다. 살아 숨쉬는 동안 쉼 없이 자신을 되돌아보는 성실함과 용기를 가진 그들이 부럽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단 한 번뿐이기 때문이다.

***박상호 동문(치대 80·샌디에이고)은 본업인 치과의사를 하면서 미주한국일보 를 통해 시(2010년)와 소설(2012년) 로 등단했다. 지난해 자전적 수필집을 출간했다.

공쿠르상을 속인 두 번의 사건, '진짜 작가는 누구인가?'

로맹 가리는 속였고 AI는 베꼈다

김학천
(치대 70·남가주)

공쿠르상을 두 번 받은 프랑스 소설가 로맹 가리(왼쪽). 집필 과정에서 AI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며 작품의 후보 자격을 박탈당한 캐나다 작가 텔리송 오렐리앵.

1980년 12월, 파리의 한 아파트에서 66 살의 소설가가 유고 원고 한 편만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956년 발표한 소설 '하늘의 뿌리'로 프랑스 최고 권위의 공쿠르 문학상을 받았던 그의 이름은 로맹 가리.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비평가들은 그를 '한물간 작가', '매너리즘에 빠진 기성 문인'이라며 냉소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년 후, 무명의 신예 작가 에밀 아자르가 '자기 앞의 생'이라는 소설로 혜성처럼 등장했다. 늙은 창부와 어린 아랍계 고아 소년의 그 이야기는 프랑스 전역을 울렸고 심사위원들은 망설임 없이 그해의 공쿠르상을 이 신인에게 안겼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에밀 아자르라는 젊은 작가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인터뷰를 피했고, 대신 폴 파블로비치라는 사람이 세상 앞에 나타났다. 사람들은 그가 새로운 작가로 생각했지만 그는 로맹 가리가 자신을 숨기기 위해 대신 위장시켜 인터뷰에 내보낸 먼 사촌이었을 뿐 신인 에밀 아자르는 실존 인물이 아니었던 거다.

이에 심사위원들도, 출판계도, 독자들도 모두 속았고 로맹 가리는 이미 받은 상을 다른 이름으로 한 번 더 받아낸 게 되었다. 상금은 상징적으로 단돈 10유로에 불과하지만, 그 대신 한 작가는 평생 단 한 번만 받을 수 있다는 규칙이 있는 명예로운 상, 공쿠르. 두 번의 수상은 없다는 그 불문율이 무너진 거다.

그리고 그는 4년후 파리의 한 아파트에서 '에밀 아자르의 삶과 죽음'을 남기고 생을 마감한 것이었다.

그 원고가 공개되는 순간, 프랑스 문단 전체가 뒤집혔다. 그는 남긴 원고에서 이렇게 고백했다. '하나의 이름으로 갇혀버린 작가로서의 자신이 지겨웠고, 다시 태어나 새롭게 평가받고 싶었다'고. 그것은 명예에 대한 조롱이자, 동시에 한 작가가 '진짜 자신'으로 다시 읽히고 싶었던 처절한 갈망이었을 거다.

아이러니하게도 아카데미는 그를 벌하지 못했다. 그는 이미 죽었고, 상은 이미 수여되었으며, 규칙은 그가 죽은 뒤에야 무력하게 확인되었을 뿐이었다. 이로써 로맹 가리는 지금까지도 공쿠르상을 두 번 받은 유일한 작가로 남아 있게 됐다.

그로부터 반세기가 흘러 지난 주, 공쿠르 아카데미는 또 한 번 '진짜 저자가 누구인가'라는 문제에 부딪쳤다.

이번엔 사람이 아니라 기계였다. 캐나다-아이티계 작가 텔리송 오렐리앙의 소설이 1차 후보에 올랐지만 발표 직후 정체를 알 수 없는 계정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AI 탐지 프로그램이 이 작품 전체 중 95%가 인공지능이 생성한 가능성을 표시한 것 때문이었다.

이어 과거 표절 의혹까지 겹쳐지면서 아카데미는 결국 이 작품을 후보 명단에서 전격 제외했다. 프랑스 출판사는 그가 생성형 AI 모델이 상업적으로 등장하기 전인 2017년 소설을 쓰기 시작해 2019년에 초안을 완성했다고 반박했다. 작가 본인도 강하게 부인하며 자신을 침묵시키려는 시도라고 맞섰고, 프랑스 문단은 지금도 이 판단을 두고 갑론을박 중이다.

로맹 가리가 인간의 이름을 바꿔 심사위원의 눈을 속였다면 오렐리앙 사건은 인간의 이름 뒤에 기계가 숨어 있었는 가로 의심받았다. 반세기 전 공쿠르상이 마주한 질문이 '이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인가?'였다면, 지금 공쿠르상이 마주한 질문은 '이 글을 정말 사람이 썼는가?'이다.

저자의 정체성을 둘러싼 문학상의 오랜 불안은 형태만 바꾸었을 뿐, 반세기를 건너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셈이다.

비평가들의 편견을 고발했던 50년 전의 희극과, 기술의 침투 앞에 인간성의 경계를 정의해야 하는 오늘날의 비극. 공쿠르상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다. '당신이 읽고 느끼고 있는 그 감동은 과연 누구의 고뇌에서 나온 것인가?'

박용필의 미국인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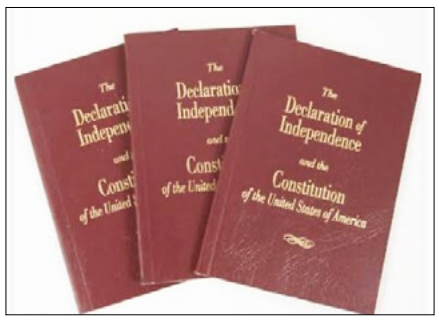
CNN 앵커의 '케이토 헌법'

CNN의 전 진행자 낸시 그레이스는 '미국 제1의 검'으로 유명세를 떨친 검사 출신 방송인이다. 비리 경찰관에게 "당신 그러고도 국민의 세금을 받아 처먹어요?"라고 따져 물을만큼 직설적이고 거침없는 독설을 퍼부어댔다. 그의 화법은 인권침해와 여론재판이라는 비판을 불러오기도 했지만, 시청자들의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했다.

급기야 그는 지난 2006년 '방송 살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한국에서 입양된 멀린다 더켓의 두 살배기 아들이 실종된 사건과 관련해서다. 경찰은 아이의 행방을 추적하는 한편 어머니의 행적에도 의문을 품고 수사하고 있었다.

그레이스는 한인여성과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그날 어디에 있었습니까?",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왜 안 받았나요?라고 추궁했다. 인터뷰 다음 날 더켓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레이스의 강압적인 질문은 언론의 책임과 여론재판의 위험성을 둘러싼 거센 논쟁으로 번졌다.

그레이스가 평소 즐겨 사용한 무기는 뜻밖에도 헌법이었다. 늘 핸드백 속에 포켓용 헌법을 갖고 다니며 이를 정치인들의 면전에 들이댔다. 그의 '헌법 협박'에 상대는 질릴 수밖에.



ABC의 간판앵커였던 피터 제닝스도 헌법의 열혈 팬이었다. 귀화시민인 제닝스는 고교중퇴의 미천한 학력에 캐나다 억양이 여전한 자신을 받아준 미국이 고마웠든지 양복 안주머니에 헌법을 갖고 다녔다. 9.11 테러 때는 60시간 논스톱 해설을 하며 헌법조문을 인용, 자유의 소중함을 일깨워줘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의원들 중엔 의외로 진보 성향의 민주당 쪽에 '헌법광'이 많다. 대표적인 인물이 로버트 버드로 무려 52년이나 의사당을 지킨 최장수 상원의원이다. 그의 헌법 카피본은 읽고 또 읽어 너덜너덜하다. 모두 4543개 단어로 구성된 헌법을 몽땅 외워 버드는 의원들 사이에 '걸어 다니는 헌법'으로 통했다. 미국에선 포켓용 헌법을 흔히 '케이토(Cato)'라 부른다. 좌파 싱크탱크인 '케이토 연구소'가 펴낸 것으로 지금까지 무려 600만 부 넘게 찍어 보급했다. 독립선언서와 헌법을 한데 담은 이 작은 책은 정치인과 법률가, 학생들에게 헌법의 정신을 가까이 접할 기회를 제공했다. 헌법을 거창한 법률 문서가 아니라 누구나 읽고 이해해야 할 시민의 책으로 만든 것이다.

미국 헌법이 발효된 것은 1789년으로 조선에서는 정조가 재위 13년째를 맞던 해다. 정조는 수원 화성을 건설하고 그 일대를 새로운 정치·경제적 중심지로 키우려 했다. 신분과 당파의 장벽을 넘어 개혁을 추진하려 했던 군주였다. 시대와 정치 체제는 달랐지만, 기존 질서를 넘어 새로운 세상을 열고자 했다는 점에서 정조의 구상은 오늘날에도 되새겨 볼 만하다.

말과 마차가 주요 교통수단이던 시대의 문서가 인공지능(AI)이 세상을 바꾸는 21세기에도 국가 운영의 근간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은 놀랍다.

2011년 연방 하원에서는 새 회기가 시작되면서 의원들이 헌법을 소리 내어 읽는 행사가 열려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다. 공화당의 제안에 민주당 의원들도 참여해 헌법의 첫 문장부터 차례로 낭독했다.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권력의 한계를 정한 건국의 원칙을 되새기자는 취지였다.

요즘 한국에서도 삼권분립과 헌법의 해석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권력의 행사가 헌법에 부합하는지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뽑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권력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감시하고, 다수의 힘으로 소수의 권리를 짓밟지 못하게 하며, 누구에게나 같은 원칙을 적용할 때 비로소 단단해진다.

미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인이 헌법 책자를 늘 가까이 두고 다녔다는 일화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헌법은 책장에 꽂아 두거나 기념식에서 낭독하기 위한 문서가 아니다. 권력이 오만해질 때 그 한계를 일깨우고, 사회가 갈등에 휩싸일 때 공동체가 지켜야 할 원칙을 확인하는 기준이다.

〈문리대 66〉

서울대 미주동창회 CENTURY FOUNDATION

재정자립 모금 캠페인

후원해 주신 동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변함없는 사랑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영원히 새겨질 나의 이름"
서울대 미주동창회 종신이사

재정자립기금 $1,362,304 (as of 8.30.2026)

종신이사

다이아몬드이사 ($100,000이상)

워싱턴주-故고광선 (공57)
조지아-故김종구 (수의73)
뉴욕-조상근 (법69)
필라델피아-신의석 (공53)

플래티넘이사 ($50,000 이상)

남가주-김일영 (의65)
조지아-주중광 (약60)
조지아-허지영 (문66)

골드이사 ($10,000 이상)

워싱턴주-양남주 (명예이사)
남가주-김경숙 (간68)
남가주-김보연 (간63)
남가주-김용재 (의60)
남가주-노명호 (공61)
남가주-박종수 (수의58)
남가주-박창규 (약59)
남가주-서동영 (사60)
남가주-서치원 (공69)
남가주-성낙호 (치63)
남가주-심화섭 (약61)
남가주-이기준 (법54)
남가주-이병준 (상55)
남가주-이홍표 (의58)
남가주-벤자민홍 (문53)
남가주-하기환 (공66)
남가주-한귀희 (미68)
남가주-한홍택 (공60)
남가주-홍수웅 (의59)
남가주-홍훈정 (음70)
남가주-정상진 (상59)
뉴욕-강에드워드 (사60)
뉴욕-오인석 (법58)
뉴욕-이정자 (간59)
뉴잉글랜드-박영철 (농64)
뉴잉글랜드-오세경 (약61)
뉴잉글랜드-윤상래 (수의62)
뉴잉글랜드-정선주 (간68)
뉴잉글랜드-최홍균 (공69)
미시간-박용화 (의58)
북가주-강재호 (상57)
북가주-김정희 (음56)
북가주-민병곤 (공65)
북가주-전혜경 (문67)
샌디에고-유현주 (문65)
샌디에고-이면기 (공64)
샌디에고-진성호 (공64)
시카고-이용락 (공48)
시카고-조규승 (문72)
워싱턴주-김재훈 (공72)
워싱턴DC-이태영 (법60)
조지아-김현희 (간59)
커네티컷-김창수 (의54)
필라델피아-김영우 (공55)
필라델피아-손재옥 (가정77)
필라델피아-신성식 (공56)
필라델피아-이만택 (의52)
하트랜드-이상강 (의70)
하트랜드-김경숙 (가정70)

실버이사 ($5,000 이상)

남가주-故김원경 (약59)
남가주-故김병연 (공68)
남가주-故이종도 (공66)
남가주-권봉성 (문64)
남가주-김수영 (사57)
남가주-박인창 (농65)
남가주-이종묘 (간69)
남가주-이호진 (간74)
남가주-정임현 (간72)
남가주-정재훈 (공64)
남가주-조용원 (문66)
남가주-홍성선 (약72)
뉴욕-김현중 (공63)
미네소타-황효숙 (사65)
북가주-박순희 (의60)
북가주-남광순 (음64)
북가주-차재철 (의62)
북텍사스-강영빈 (문58)
북텍사스-이승화 (공03)
워싱턴DC-남욱현 (경영84)
워싱턴DC-배성호 (의65)
워싱턴DC-최재귀 (미63)
조지아-김경숙 (사64)
조지아-김태형 (의57)
조지아-임수암 (공62)

종신이사 ($3,000 이상)

남가주
故노재성 (법58)
故박명근 (상63)
故박윤수 (문48)
故서영석 (의55)
故오재인 (치33)
故윤낙승 (의60)
故오흥조 (치56)
강신용 (사73)
곽웅길 (문59)
권기홍 (의60)
김광은 (음56)
김기형 (상75)
김대중 (의70)
김동훈 (의71)
김보연 (간63)
김상찬 (문65)
김성호 (법64)
김자성 (의79)
김재영 (농62)
김정빈 (공66)
김홍묵 (문60)
나두섭 (의66)
나용화 (생과79)
류재풍 (법60)
박용필 (문66)
박원준 (공53)
방명진 (공73)
백길영 (의58)
백만일 (공64)
신건호 (법53)
신경자 (사60)
신영찬 (의63)
심상은 (상54)
안병일 (의63)
이근원 (공67)
이명선 (상58)
이성숙 (공56)
이세열 (사57)
이승훈 (상74)
이채진 (문55)
이청광 (상61)
임낙균 (약64)
임용오 (의57)
전경배 (의69)
전희택 (의58)
정균희 (의64)
정희영 (치58)
정동구 (공57)
정철륭 (의61)
제영혜 (가정71)
조한원 (의57)
차민영 (의76)
차종환 (사54)
한효동 (공58)
홍종화 (약74)
황해룡 (공52)

뉴욕
故김광호 (문62)
故한창섭 (문57)
故김종률 (사51)
고애자 (음57)
권영국 (상60)
김승호 (공71)
김영용 (치55)
김한종 (의56)
김해암 (의52)
배정희 (사54)
서영숙 (간67)
석창호 (의66)
손병우 (문69)
손진태 (약67)
신응남 (농70)
오용호 (의66)
윤인숙 (간63)
윤종숙 (약66)
이강홍 (상60)
이기영 (농70)
이대영 (문64)
이영재 (상58)
이재덕 (법60)
이재랑 (상61)
이전구 (농60)
이준행 (공48)
이태호 (상58)
조대일 (사53)
최수용 (상55)
최영태 (문67)
최한용 (농58)
최형무 (법69)
추재옥 (의57)
한태진 (의58)
허선행 (의58)

뉴잉글랜드
故고일석 (보건69)
故박경민 (의53)
김광수 (문73)
고종성 (사75)
김문소 (수의61)
김용구 (공66)
오세경 (약61)
윤선홍 (치64)
이의인 (공68)
전신의 (문57)
정정욱 (의60)
정태영 (문71)
조만연 (상58)
홍지복 (간70)

미네소타
김권식 (공61)
김태환 (의58)
남세현 (공67)
문성인 (공88)
박현아 (공88)
변우진 (문81)
송창원 (문53)
조형준 (문62)

미시간
故남상용 (공52)
故정태 (의57)
장병진 (공61)

북가주
박종성 (법53)
박진영 (공66)
손석보 (공68)
윤정옥 (약50)
최경선 (농65)
한만섭 (공49)
황동하 (의65)

샌디에고
임천빈 (문61)

시카고
故이윤모 (농57)
故강영국 (수의67)
故최의필 (의53)
소진문 (치58)
심상구 (상63)
유기정 (간72)
윤봉수 (간69)
이재희 (치67)
장윤일 (공60)
조봉완 (법53)
한재은 (의59)

알래스카
윤제중 (농55)

오레곤
김상순 (상67)
박희진 (농78)
이은상 (상52)

오하이오
김용헌 (경영66)
이지우 (의68)

워싱턴주
故김영일 (공53)
이명자 (간74)
이희백 (의55)
임헌민 (공84)

워싱턴 DC
故방은호 (약43)
故서휘열 (의57)
김내도 (공62)
강연식 (사58)
공순옥 (간66)
권기현 (사53)
민홍기 (문61)
박평일 (농69)
오인환 (문63)
이내원 (사58)
이선구 (문65)
이윤주 (상63)
최지원 (의61)

조지아
김용건 (문48)
석호태 (공85)
성성모 (사67)
이종석 (의54)

커네티컷
故유시영 (문68)

텍사스
박태우 (공64)
이광연 (공60)
조시호 (문59)

플로리다
김중권 (의63)
박우삼 (의54)
임필순 (의54)

필라델피아
고병은 (문55)
김현영 (수의58)
서중민 (공64)
정규병 (공78)
주기목 (수의68)
최종무 (상63)

하와이
故최경윤 (사51)

하틀랜드
故김명자 (문62)
김시근 (공72)
배규영 (사68)
오명순 (가정69)
이교락 (의53)

휴스턴
박진섭 (의67)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855 Village Center Drive, SUite 357, North Oaks, MN 55127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동문님의 '기부'가 미주동창회를 만듭니다.

함께 해주신 동문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1,2차 회기 모두 내신 동문님은 명단에 BOLD로 바뀝니다.**

동창회비 | 1차: 2025.7.1~2026.6.30, 2차: 2026.7.1~2027.6.30

남가주
강경수 (법58)
강동순 (법59)
강호석 (상81)
고윤석 (공62)
김경숙 (가정70)
김경자 (미60)
김광주 (문69)
김광은 (음56)
김기형 (상75)
김동산 (법59)
김동석 (음64)
김명숙 (농58)
김병완 (공58)
김상순 (상67)
김상찬 (문65)
김성환 (의65)
김성호 (법64)
김수영 (사57)
김자성 (의79)
김재영 (농62)
김정복 (사55)
김종표 (법58)
김주은 (공)
김준식 (상75)
김영덕 (법58)
김영배 (미61)
김영중 (치66)
김옥경 (사60)
김원탁 (공65)
김태기 (의62)
김택수 (의57)
김태환 (의58)
나승욱 (문59)
나용화 (생과79)
노명호 (공61)
문병길 (문61)
박시영 (사63)
박우선 (공57)
박은숙 (미62)
박인수 (농64)
박원준 (공53)
박자경 (사60)
박종수 (수의58)
박호현 (의52)
박호현 (의52)
백혜란 (미70)
벤자민홍 (문53)
서동영 (사60)
선우원근 (공66)
성낙호 (치63)
손학식 (공61)
송명국 (인문81)
송태진 (공79)
신건호 (법53)
신동국 (수의76)
신영찬 (의63)
심계식 (사63)
양은석 (음70)
양태준 (상56)
오선웅 (의63)
윤석철 (상60)
이강훈 (치65)
이건일 (의62)
이방기 (농59)

이범식 (공61)
이상강 (의70)
이서희 (법70)
이소현 (공15)
이수인 (미95)
이연숙 (간76)
이영신 (간77)
이용한 (공64)
이원익 (문73)
이종묘 (간69)
이진영 (의65)
이재권 (법56)
이창신 (법57)
이채진 (문55)
이호진 (간74)
이홍표 (의58)
임동규 (미57)
임창희 (공73)
장동석 (문66)
장문섭 (공69)
장소현 (미65)
장원경 (미73)
장윤희 (사54)
장인숙 (간70)
정동주 (생72)
정명자 (사56)
정연우 (서20)
정연웅 (상63)
정예현 (상63)
정인환 (법54)
정 황 (공64)
조동철 (사68)
조 무 (법70)
주정래 (상65)
채규황 (법69)
천동우 (공63)
최영순 (간69)
한귀희 (미68)
한정헌 (치55)
한홍택 (공60)
한효동 (공58)
함송욱 (간73)
현기웅 (문64)
홍선례 (음70)
홍성선 (약72)
홍성애 (간60)
황건흠 (공55)
황현상 (의55)
뉴욕
강에드워드 (사60)
고순정 (간69)
고애자 (음57)
권문웅 (미61)
권영국 (상60)
권영대 (공69)
권정덕 (의58)
금영천 (약72)
김광현 (미57)
김문경 (약61)
김복영 (간69)
김용연 (문63)
김욱현 (의59)
김은희 (간78)
김정희 (간69)
김정희 (약56)

김종원 (사58)
김현중 (공63)
남상래 (간66)
리준무 (음65)
민인기 (의67)
박건이 (공60)
박경희 (음57)
박승화 (간69)
박은규 (약72)
박제순 (인문82)
방준재 (의63)
배상규 (약61)
변건웅 (공65)
서병선 (음65)
서의원 (공66)
석창호 (의66)
선종칠 (의57)
성기로 (약57)
손갑수 (약59)
손진태 (약67)
송기인 (의60)
송용섭 (농63)
송웅길 (대학원69)
신응남 (농70)
안태홍 (상65)
양경호 (공83)
양명자 (사63)
양성택 (상66)
우규환 (사60)
유재섭 (공65)
유은희 (간71)
유호근 (문71)
윤영섭 (의57)
이강욱 (공70)
이경림 (상64)
이대영 (문64)
이문봉 (미76)
이상근 (경영84)
이상무 (의56)
이영범 (공71)
이영희 (미68)
이용대 (약63)
이재원 (상58)
이재진 (의59)
이충호 (의63)
이태안 (의61)
이흥우 (공50)
정동성 (상58)
조남천 (사59)
조대영 (공61)
조태환 (상56)
진봉일 (공50)
최준희 (의58)
최한용 (농58)
최형무 (법69)
함종금 (간66)
허영자 (약63)
하룬 (법02)
Yong Auh (의66)
뉴잉글랜드
김경일 (공58)
김선혁 (약59)
김문소 (수의61)
김옥동 (사58)
김형범 (문57)

박종건 (의56)
박종승 (의56)
박지용 (경13)
송미자 (농62)
신정윤 (공60)
윤상래 (수의62)
윤영자 (미60)
이규진 (약60)
이금하 (문69)
임국희 (사92)
임영호 (공72)
한서동 (의61)
현건섭 (공55)
황민영 (공17)
록키마운틴스
임현재 (의59)
미네소타
경홍준 (공19)
김권식 (공61)
문성인 (공88)
박현아 (공88)
성욱진 (치87)
손창수 (경영86)
임동근 (농14)
주한수 (수의62)
황효숙 (사65)
미시간
오동환 (의65)
이성길 (의65)
조병권 (공64)
주명순 (간64)
최병두 (의52)
하계현 (공64)
한영신 (생과86)
북가주
강성우 (공02)
강재호 (상57)
고범규 (공07)
고우종 (공04)
권구형 (공98)
권석주 (공08)
권지혜 (미05)
권혁민 (공01)
권현오 (사13)
김갑균 (공60)
김교연 (문72)
김권규 (공14)
김규범 (경영07)
김기오 (물96)
김동건 (공10)
김소연 (공96)
김수현 (공14)
김아린 (사회16)
김예린 (공07)
김재환 (공98)
김정운 (간90)
김종현 (공60)
김지수 (경영11)
김푸른 (공15)
김현왕 (공64)
김호준 (공19)
남형욱 (자유12)
노경실 (외08)
노은지 (공07)
도연희 (생과93)

민병곤 (공65)
박서규 (법56)
박은정 (공04)
박정규 (간76)
박정욱 (미96)
백경민 (공15)
부영무 (치72)
서유리 (음06)
서혜승 (인05)
성은지 (인13)
손성호 (인지10)
손창순 (공69)
송수연 (간08)
송승환 (공98)
송현영 (공99)
신규영 (공64)
신범준 (공11)
신피터 (공98)
안성호 (인99)
안호삼 (문58)
연평우 (공03)
오태호 (공93)
온기철 (의65)
위창호 (의67)
유호준 (공10)
윤성희 (사58)
윤정옥 (음64)
음재훈 (화88)
이가령 (공15)
이동희 (경영07)
이상민 (사회13)
이상현 (자11)
이수미 (공18)
이승훈 (경영01)
이정남 (공63)
이정현 (서양사96)
이지수 (공94)
임승쾌 (문66)
임정란 (음76)
임지현 (공96)
전병련 (공54)
정영주 (공00)
정지선 (상58)
정춘임 (간67)
정한규 (의63)
정현준 (공04)
조성문 (공96)
지대형 (경영07)
진영안 (공60)
최경선 (농65)
최종훈 (공93)
최진경 (영12)
최홍규 (자전13)
추교진 (공03)
하성주 (공04)
한기용 (공89)
한상봉 (수의67)
한주연 (영13)
홍병익 (공68)
황동하 (의65)
황만익 (사59)
황지성 (공11)
북텍사스
송요한 (문73)
이석호 (농78)

최휘기 (공61)
샌디에고
김인철 (약70)
오계환 (공64)
이문상 (공62)
임춘수 (의57)
시카고
국경환 (경영12)
김동희 (공66)
김병윤 (문65)
김성일 (공68)
김승주 (간69)
김정수 (문69)
김용주 (공69)
김용환 (공71)
김정수 (문69)
김현주 (문61)
노영일 (의62)
민영기 (공65)
박창용 (공87)
백운기 (문56)
서상헌 (의65)
소진문 (치58)
신석균 (문54)
심상구 (상64)
유기정 (간72)
윤경순 (사61)
윤덕상 (치62)
윤봉수 (간69)
이건정 (공69)
이경미 (미69)
이덕수 (문58)
이동균 (공75)
이영우 (문66)
이용수 (약51)
이재희 (치67)
이준수 (공76)
장윤일 (공60)
정성일 (공86)
조규승 (문72)
조대현 (공57)
최희수 (문67)
한의일 (공62)
한재은 (의59)
홍 건 (의64)
홍승우 (사회87)
홍청일 (약57)
황치룡 (문65)
오레곤
박희진 (농78)
한국남 (공57)
애리조나
진명규 (공70)
오하이오
유덕영 (공57)
워싱턴주
김인배 (수의59)
김재훈 (공72)
안승적 (농59)
유성열 (공대72)
윤석진 (문64)
이길송 (상57)
이정관 (농83)
이회백 (의55)
정영자 (사60)

최두환 (공83)
최준한 (농58)
워싱턴 DC
강길종 (약69)
권철수 (의68)
김내도 (공62)
김부근 (의52)
김준수 (공07)
김응환 (치88)
김해식 (공59)
김희주 (의62)
나연수 (사54)
남욱현 (경영84)
남춘일 (사69)
박상근 (법75)
박성희 (환경계획20)
박인영 (의69)
박일영 (문59)
박홍우 (문61)
배성호 (의65)
백용현 (공64)
변광록 (간72)
서윤석 (의62)
석균범 (문61)
안민영 (경영01)
오인환 (문63)
우제형 (상54)
유영준 (의68)
원종민 (약57)
이내원 (사58)
이민석 (공89)
이선구 (문65)
이성배 (수의57)
이승재 (공15)
이연주 (치88)
이종국 (의52)
이준영 (치74)
정문필 (사56)
정 상 (약83)
정원자 (농62)
정평희 (공71)
최대용 (의73)
최재귀 (미63)
홍영석 (공58)
조지아
김기준 (공61)
김영서 (상54)
김학수 (상65)
남세현 (공67)
서광모 (공65)
성성모 (사67)
송용덕 (의57)
이종석 (의54)
임수암 (공62)
정선휘 (공65)
최종진 (의63)
한성수 (의54)
한영신 (가86)
중부텍사스
이학호 (수의59)
캐롤라이나
이종영 (음58)
정신호 (자연78)
조철영 (의68)

테네시
권준희 (가정87)
김경덕 (공75)
김 현 (문93)
서갑식 (공70)
텍사스
배성렬 (화10)
이승화 (공03)
이태균 (공16)
천양곡 (의63)
황명규 (공61)
플로리다
김중권 (의63)
박우삼 (의54)
오석일 (의64)
이만택 (의52)
이민우 (의61)
필라델피아
강준철 (사59)
고병은 (문55)
고석규 (치65)
김국간 (치64)
김순주 (치95)
김영남 (의61)
김현영 (수의58)
서중민 (공64)
손재옥 (가정77)
신선자 (사60)
신성식 (공56)
심영석 (공76)
안세현 (의62)
오진석 (치56)
윤정나 (음57)
이규호 (공56)
이성숙 (가정74)
전방남 (상73)
정규병 (공78)
정덕준 (상63)
정홍택 (상61)
주기목 (수의68)
지흥민 (수의61)
조화연 (음64)
최종무 (상63)
최현태 (문62)
한동휘 (문57)
하틀랜드
구명순 (간66)
심정희 (음86)
오태요 (의56)
윌리엄슨주희 (음89)
이주현 (미92)
정민재 (농70)
하와이
김용수 (농75)
안은식 (문55)
이재형 (수의61)
휴스턴
류유미 (약62)
박태우 (공64)
박석규 (간59)
이길영 (문59)
진기주 (상60)
최성호 (문58)
하재청 (문67)

일반후원금, 장학후원금, Brain Network 후원금, Charity 후원금, 광고후원금, 지부분담금 | 2025.7.1~

일반후원금

남가주

김기형 (상75)	600
김상순 (상67)	300
김성환 (의65)	200
김영배 (미61)	200
김정상 (경제91)	300
김종표 (법58)	200
나두섭 (의66)	100
박우선 (공57)	500
박종수 (수의58)	3,000
송명국 (인문81)	100
신영찬 (의63)	200
양은석 (음70)	200
윤석철 (상60)	2,000
이건일 (의62)	200
이범식 (공61)	200
이병준 (상55)	10,000
정예현 (상63)	200
정연웅 (상63)	200
정임현 (간72)	1,000
한귀희 (미68)	2,000
황건흠 (공55)	200
황현상 (의55)	200
익명요청	1,000

뉴욕

강에드워드 (사60)	700
리준무 (음65)	500
선종칠 (의57)	200
성기로 (약57)	100
신응(농70)	4,728.50
조남천 (사59)	300

뉴잉글랜드

오세경 (약61)	3,000
윤상래 (수의62)	2,000
정선주/박영철 (간68, 농64)	5,000

미네소타

강순건 (문57)	1,000
김권식 (공61)	41,000
이희윤 (농84)	100
황효숙 (사65)	40,000

미시간

고광국/고국화(공54, 56)	1,000
오동환 (의65)	400

북가주

황만익 (사59)	500

샌디에고

임춘수 (의57)	200

시카고

조규승 (문리72)	1,000
이용수 (약51)	250
서상헌 (의65)	100
장윤일 (공60)	100
최희수 (문67)	100

오레곤

박희진 (농78)	200

오하이오

故정운행 (문53)	500

조지아

성성모 (사67)	200
송용덕 (의57)	200
이종석 (의54)	100
한성수 (의54)	200

워싱턴

정영자 (사60)	200

워싱턴 DC

강길종 (약69)	500
권철수 (의68)	500
박상근 (법75)	1,000
박평일 (농69)	1000
서윤석 (의62)	200
이내원 (사58)	200
정평희 (공71)	200

캐롤라이나

조철영 (의68)	200

테네시

김경덕 (공75)	100

플로리다

김중권 (의63)	200

필라델피아

손재옥 (가정77)	1,000
이성숙 (가정74)	300

휴스턴

진기주 (상60)	1,000

SNUAA EDGE 후원

미주 총동창회	10,000
서울대 총동창회	2,000
남가주지부	1,000
뉴욕지부	2,600
북가주지부	500
미네소타지부	500
고국화/고광국(공56) 미시간	1,000
김해암 (의52) 뉴욕	3,000
조성문 (공96) 북가주	2,900
권혁민 (공01) 북가주	50
Moloco	3,000
SAEFARM	1,000

장학후원금

남가주

김종섭 (문66)	10,000
김홍묵 (문60)	300
노명호 (공61)	10,000
박원준 (공53)	500
한홍택/백훈(공60, 미61)	10,000
황현상 (의55)	100

미네소타

김권식 (공61)	10,000
황효숙 (사65)	10,000

미시간

고광국/고국화 (공54, 공56)	200,000

북가주

신규영 (공64)	300

조지아

故김종구 (수의73)	10,000

워싱턴 DC

유영준 (의68)	100
이경애 (문58)	10,000

테네시

권준희 (가정87)	100

필라델피아

손재옥 (가정77)	5,000

플로리다

오석일 (의64)	200

커네티컷 지부 후원

故유시영(문68)	10,000

Brain Network 후원

워싱턴 DC

오인환 (문63)	200

광고후원금

남가주

강호석 (상81)	250
김영도 (공67)	250
김자성 (의79)	500
김원탁 (공65)	480
김한신 (서양사92)	500
김홍일 (치62)	250
독고량/서정화(음80)	250
박상효 (의65)	250
배재현 (공75)	500
서동영 (사60)	980
송미선 (음89)	500
신정식 (상64)	500
양은석 (음70)	125
이명선 (상58)	1,000
이병준 (상55)	1,000
이상대 (농80)	250
이승훈 (상74)	1,000
이종묘 (간호69)	480
이찬용 (치72)	500
이현림 (음81)	500
정균희 (의64)	1,000
최운화 (상78)	250
하기환 (공66)	1,000
하선호 (치81)	250
한태호 (문75)	500
Duo America	300
남가주 대학원동문회	1,000
아주여행사	500
SNU Foundation	8,000
OB 산악회	1,000
Korean Dance Institute	125
SNU 공대	500

북가주

이경희 (인문83)	500

뉴욕

석창호 (의66)	240
신응남 (농70)	500

미네소타

황효숙 (사65)	1,000

시카고

조규승 (문리72)	1,240

워싱턴 DC

남욱현 (경영84)	1,000
정세근 (자연82)	500
Wealthy & Wise	300

필라델피아

손재옥 (가정77)	480

지부분담금

남가주	3,000
뉴욕	3,000
뉴잉글랜드	1,000
로키마운틴	200
미네소타	550
미시간	300
북가주	1300
북텍사스	550
샌디에고	550
시카고	2,400
애리조나	200
알래스카	
오레곤	
오하이오	300
유타	
워싱턴DC	2,000
워싱턴주	800
조지아	800
중부텍사스	
캐롤라이나	200
커네티컷	300
테네시	
필라델피아	1,000
플로리다	300
하트랜드	550
하와이	
휴스턴	550

*동문들께서 보내주신 동창회비와 후원금은 매달 25일에 마감해서 올립니다. 혹시 누락된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snuaa.org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동창회 후원금	동창회비	종신이사	광고비	특별 후원금
☐ $ 200 ☐ $ 500 ☐ $ 1,000 ☐ $_____	☐ $100 (7/2025~6/2026, 1년) ☐ $100 (7/2026~6/2027, 1년) ☐ $200 (7/2025~6/2027, 2년)	☐ $ 3,000 ☐ $ 5,000 실버 ☐ $10,000 골드 ☐ $50,000 플래티넘 ☐ $100,000 이상, 다이아몬드	☐ Full Size $1,000 ☐ 1/2 Size $ 500 ☐ 1/3 Size $ 300 ☐ 1/4 Size $ 250 ☐ 웹사이트(1년) $ 500	☐ SNUAA 장학후원 ☐ Charity Fund (나눔) ☐ Brain Network ☐ 모교 발전기금 ☐ SNUAA EDGE 후원

TOTAL $_____
Make check payable to: **SNUAA USA**

주소: SNUAA USA
855 Village Center Drive, Suite 357
North Oaks, MN 55127

한국 이름	영어 이름	단과대	학번 (입학년도)	지부

이메일	전화번호

현주소

업소록 광고비

☐ $240 (2026/7~2027/6, 1년)

***2026년도 업소록 광고를 원하시는 동문께서는 광고비를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업소명

한국이름	단과대	학번 (입학년도)	지부

업소 주소	업소 전화번호

*서울대 미주동창회는 기부자들이 세금보고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501(c)(3) 비영리단체로, EIN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은 13-3859506 입니다.

제18대 서울대 미주동창회

회장 황효숙(사)

상임고문: 송창원(문), 김권식(공), 신학철(공)
고문: 한홍택(공) IT 담당
이희윤(농) 지속가능 발전기획 담당
이준수(공) 조직관리 담당
신응남(농) 법률 담당
박평일(농) 친선 담당
오인환(문) 전략개발 담당
김태환(의) 미네소타 프로젝트 II 의학 담당
문성인(공) 지부지원 담당
주한수(수) 특별행사 담당
이승화(공) 세대간 소통 담당

차기회장 박상근(법)
명예회장 이상강(의)

역대 회장
박윤수(문), 강수상(의), 이병준(상), 오인석(법), 이용락(공), 오흥조(치), 이영묵(공), 이전구(농), 송순영(문), 김은종(상), 오인환(문), 손재옥(가), 윤상래(수), 신응남(농), 노명호(공)

집행부
사무총장: 이희윤(농)
총무국장: 경홍준(공)
재무국장: 손창수(상)
섭외광고국장: 홍선례(음)

동창회보 편집위원회
발행인: 황효숙(사)
편집장: 신복례(인문)
편집위원: 김정필(공), 정태영(문), 이준수(공), 한정희(미), 윤정아(생), 최화진(음), 문성인(공), 김량국(사)
편집디자이너: 조준호
그래픽 디자이너: 이소란(미)

장학위원회
위원장: 한홍택(공)
위원: 신응남(농), 임헌민(공), 이준수(공), 임준원(공), 최인숙(약), 최화진(음), 김광수(자), 문성인(공)

브레인 네트워크
국장: 변정민(공)
SNU 포럼 위원회: 위원장 김재훈(공)
Entrepreneurship 네트워크 위원장: 김량국(사)
My Way 포럼 위원장: 장윤정(법)
AI Discovery Club 위원장: 한홍택 (공)

지속가능 발전기획 위원회
위원장: 이희윤(농)
위원: 박현아(공), 강경철(공)

나눔위원회
위원장: 이성숙(가)
위원: 이희윤(농), 손창수(상), 노정희(음), 경홍준(공), 최승희(사회)

회칙위원회
위원장: 이준수(공)
위원: 김용헌(상), 최경선(농) 최진석(법), 한재은(의)

포상위원회
위원장: 황효숙(사)
위원: 각 지부 회장

감사
김영석(공)
노상문(경)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SNU Alumni Association USA
전화 (952) 567-3477 | 이메일 contact@snuaa.org | 웹사이트 www.snuaa.org
주소 855 Village Center Drive, Suite 357, North Oaks, MN 55127
미주동창회보 편집 규정 본 회보에 게재된 모든 기고문은 회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투고된 글의 게재 여부는 편집회의 등을 통하여 결정됩니다.

미주 지역동창회 회장단

알림: 2026년 새로 지부장이 결정된 곳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sunaa.org

남가주 S.CA/NV (Feb~Jan)
회장 양수진(간호대80) T: (714) 335-2148
sujinyang2011@gmail.com

캐나다 벤쿠버 (Jan~Dec)
원경란(의대 84)
T: (778) 883-1678
estellewon@gmail.com

캐나다 엘버타 (Mar~Feb)
정중기(공대 70)
T: (403) 617-7585
monicaWshaw.ca

미네소타 Minnesota (Jan~Dec)
문성인(공대 88)
T: (952) 250-3500
msungin@hotmail.com

미시간 Michigan (Jul~Jun)
박기완(농대 86) T: (517) 980-1519
globalpkw@gmail.com

북가주 San Francisco (Feb~Jan)
김범섭(공대 79) T: (408) 464-4502
beomsupkim@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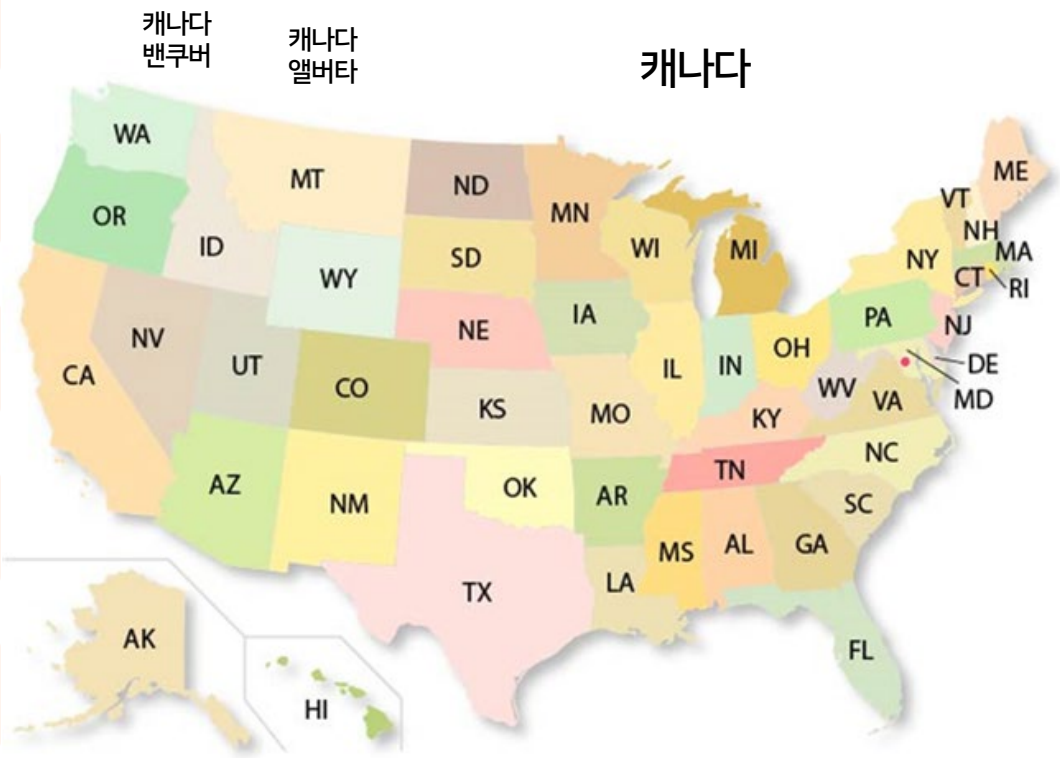
오레곤 OR/ID (Jan~Dec)

알래스카 Alaska (Jan~Dec)
윤재중(농대 55)
T: (907) 223-0887
jaejyoon@hotmail.com

뉴잉글랜드 MA/RI/NH/ME/VT (Jul~Jun)
이영인 (사대 74)
T: (617) 329-1442
youngchunglee@gmail.com

시카고 IL/IN/WI (Jan~Dec)
이동균(공대 75)
T: (847) 644-4807
dlee1917@yahoo.com

샌디에고 San Diego (Jan~Dec)
오충훈(자연대 81) T: (951) 795-8687
peter.oh@asml.com



뉴욕 NY/NJ (Jul~Jun)
김병순(사회대 82) T: (703) 407-4928
kbs8717@gmail.com

워싱턴 Washington (Jan~Dec)
이정관(농대 83) T: (425) 998-4150
jklee234@yahoo.com

위싱턴 DC DC/MD/VA/WV (Jan~Dec)
남욱현(경영대 84) T: (703) 898-6429
minamusa@yahoo.com

오하이오주 Ohio (Jan~Dec)
이성우(상대 72) T: (614) 370-5761
rimshake@hotmail.com

커네티컷 CT
박성훈(자연대 91) T: (781) 812-8778
shparkdream@gmail.com

하와이 Hawaii (Jul~Jun)
성낙길(문리대 77) T: (217) 508-8711
nsung@hawaii.edu

필라델피아 PA/DE/S.NJ (Jul~Jun)
김영석(음대 74) T: (215) 287-3939
imtenor@hotmail.com

북텍사스 LA/Dallas (Jan~Dec)
김영훈(농대 95)
kim0hun@gmail.com

록키마운틴스 MT/CO/WY/NM (Jan~Dec)
최문기(공대 73)
mungichoi@hotmail.com

중부 텍사스 Mid-Texas
이학호(수의대 59)
T: (512) 290-1911
hakho3830@gmail.com

유타 Utah (Jan~Dec)
김한섭(공대 93)
T: (734) 904-9672
hanseup@ece.utah.edu

조지아 GA/AL/MS (Jan~Dec)
김인구(농대 87)
T: (404) 547-1859
kevin@ikkimlaw.com

캐롤라이나 SC/NC/KY (Jan~Dec)
정신호(자연대 78) T: (417) 277-1636
sinho.jung@duke.edu

휴스턴 Huston (Jan~Dec)
회장 김정환(공대 80) T: (832) 638-7194
kandc719@gmail.com
부회장 김건호(공대 91)
kunhok@gmail.com

애리조나 Arizona
정인주(농대 82)
T: (602) 510-9196
snuarizona@gmail.com

하틀랜드 IA/MO/KS/NE/AR/OK(Jan~Dec)
노정희(음대 86)
T: (913) 220-3021
genesisjoung67@gmai.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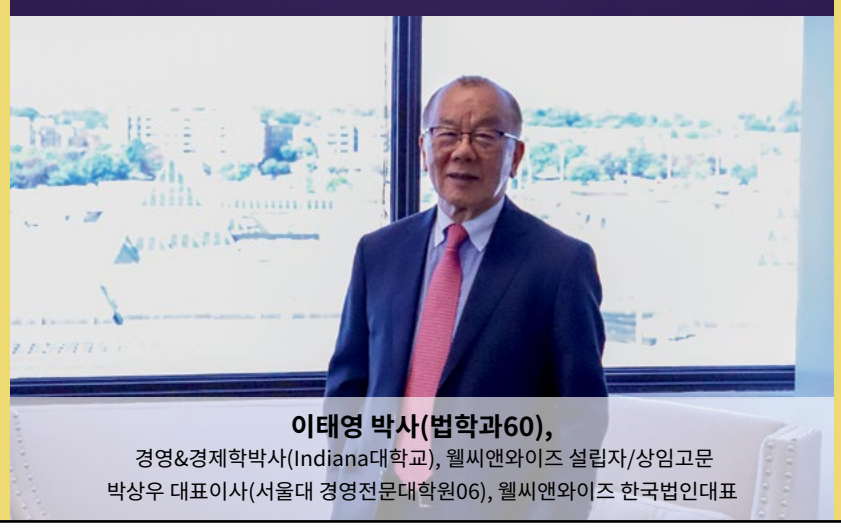
플로리다 Florida (Jan~Dec)
조동건(법대 65)
T:
dcho0806@bellsouth.net

테네시 Tennessee (Jan~Dec)
염신철(공대 98) T: (310) 689-6366
syeom@alum.utk.edu

FINANCIAL ADVISORY SERVICES

Advanced
Financial
Clarity

W&W
COLUMBIA,MD SEOUL



이태영 박사(법학과60),
경영&경제학박사(Indiana대학교), 웰씨앤와이즈 설립자/상임고문
박상우 대표이사(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06), 웰씨앤와이즈 한국법인대표

Wealthy&Wise
Your wealth, Your future, Our strategy.

SERVICES

- 글로벌 투자전략
- 한·미 자산 이전
- 상속 및 세무계획
- 은퇴자산 관리
- 세대별 자산관리
- 신탁 설립 운용

COLUMBIA OFFICE
10320 Little Patuxent Pkwy, Suite 930, Columbia, MD 21044, USA

SEOUL OFFICE
#201, 111 Yeouigongwon-ro, Yeongdeungpo-gu, Seoul, Korea

Scan For More

410-469-9532
info@investedadvisory.com
www.wealthyandwisefamilyoffice.com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Noblese Oblige

따뜻한 나눔으로
더 큰 공동체를 만들어갑니다.

| 재난 및 긴급 구호
| 지역사회 봉사
| 문화 예술을 통한 지역 사회 공헌
| 기타 공익성이 인정되는사업

CARE 따뜻한 배려 | **COMMUNITY** 함께하는 공동체 | **CONNECTION** 이어지는 나눔

Hand illlustrations by Storyset

CONTACT

회장 황효숙
651-308-0796 | sook@nano-dyne.com

나눔 위원장 이성숙
610-417-4789 | susyhong19@gmail.com

업소록 광고

남가주 | CA

부동산 : **Team Spirit Realty**	기계	기술	전자 : **Link TV Media**	자동차	서비스 : **A.P,.W, 자동차 부품**
이종묘(간호대69), Jennie Lee T: 714-396-0624 6301 Beach Blvd #225 Buena Park, CA 90621 jennieclee@gmail.com	김원탁(공대65) O: 818-514-6780 | M: 818-720-2373 24208 Park Athena Calabasas, CA 90302 linkboxusa@gmail.com	서동영(사대60) T: 310-753-9636 1073 E. Artesia Blvd.Carson, CA 90746
뉴욕 | NY.NJ	**필라델피아 | PA**	**시카고 | CHI**
의료 | 병원 : **석창호 위장내과**	건축 : **THA Consulting, Inc.**	주방 가전 : **Magic Chef**
석창호(의대66) T: 718-461-6212 41-61 Kissena Blvd. #27 Flushing, NY 11355	손재옥(가정대77) T: 484-342-0200 480 Norristown Road. Suit 200 Blue Bell, PA 19422 www.tha-consulting.com	조규승(문리대72) T: 630-238-0600 940N.Central Avenue, Wood Dale,IL 60191 salessupport@magicchef.com | www.magicchef.com

천사

마음을 채우고 내일을 채우는

마만 × 만

매월, 만명의 만원이 만드는 기적

샤인

You are my SNUshine!

학생의 오늘,
서울대학교의 내일을
함께 응원하는
기부3관왕 입니다.

하루를 채우는
따뜻한 한 끼의 마음

큰 힘을 만드는
매월 만원의 참여

서울대를 밝히는
반짝이는 응원

지금 참여 가능합니다. 간단 참여 신청서를 찍어 213-435-1974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 성함 는 기부액 으로 기부에 참여합니다.

연락처 휴대폰 번호 전공 학과 입학년도 년 입학

나의 참여현황을 확인하고
기부3관왕을 완성해보세요.

기부3관왕 달성시, SNU기부3관왕
오르골을 웰컴패키지로 드립니다.

서울대학교발전재단 미주재단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Inc.

NJ OFFICE 400 Kelby Street, Suite 1803, Fort Lee, NJ 07024 (Parker Plaza) TEL +1-212-768-9144 EMAIL michelle@klcpagroup.com
LA OFFICE 1148 W Valley View Dr. Fullerton CA 92834 TEL +1-213-435-1974 EMAIL america@snu.ac.kr